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 내는 경남고교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집주간 김중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오는 6월 20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이 단아하면서 웅골찬 자태로 서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동문 정성 모아 총동창회관 개관, 78년 숙원 풀어

“경남중고 총동창회 제2의 탄생이다.” “졸업생 6만8천여 용마들의 78년 숙원을 푼 쾌거이다.” 용마들의 보금자리가 될 총동창회관 개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는 6월 20일 총동창회는 ‘제2 부평시대’를 공식 선포한다. 이날을 기해 100년 역사를 향한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된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가 지난 5월 말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가히 ‘명품회관’ 출현이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리모델링공사에 참가한 동문 등이 심혈을 기울인 ‘명작’으로서 역사에 기억될 동창회관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특히 1층에서 6층까지 계단복도를 이용한 ‘미니역사관’ 설치하는 총동창회관으로서의 명분과 긍지를 공고히 할 요소로 돋보인다.

박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개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관 개관식이 열리는 6월 20일은 경남중고 총동창회 역

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다. 회관 기금 모금운동을 제안하고 2년 3개월 만에 1,200여명의 동문이 동참, 대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총동창회관은 용마들의 자부심의 요람이다. 동문 누구나 부담 없이 둘러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8년의 역사가 녹아 있는 미니역사관 방문을 요청한 박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관이 재학생 후배들의 필수 방문코스로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총동창회 사무국은 지난 6월 1일 5

층에 입주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전 골든오피스텔의 사무국 사무실은 매각 처리했다. 동창회관 3층 전체 단독 임대 사무실은 지난 5월 26일 가장 먼저 입주, 영업 중에 있다. 2층의 당구장 역시 마니아 동문들로 북적이고 있다. 4층의 동기회 및 동호회 등 동문 공용사무실은 속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1층의 카페&레스토랑은 직영체제를 갖춰 지난 6월 2~5일 시범영업을 가진 뒤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미니역사관은 용마들의 역사교육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의 각종 임대 및 수익 사업

은 모교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와 동문 만남과 교류의 장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6월 8일 이후 총동창회관에서 동기회 모임은 사무국과 수용 공간 등을 조율하면 가능하다.

6월 20일의 개관식은 현판식이 핵심적 행사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회관 정문 오른쪽에 세로로 세워진 ‘경남중고 총동창회’ 휘호는 김영일(16회) 동문의 작품이다.

개관식 날은 오전 10시부터 방문객들에게 준비한 떡과 음료를 제공하고, 기념선물(타월, 머그잔, 2021캘린더)을 선사한다. 총동창회관 방문객은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과 총동창회에서 기획한 기념상품(T셔츠, 모자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용마 긍지’ 증명한 회관 모금 대장정

1,200여명 참가, 모금액 21억원 훌쩍 넘어

‘용마의 대장정’은 드디어 끝이 났다.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모금운동

이 지난 5월 20일 종료됐다. 그후 며칠 여진(餘震) 같은 기부가 이어지기

도 했다. 우정과 사랑, 감동과 찬사의 대서사시를 연출했다. <기수별 모금 현황 표물 10면·관련기사 17면 게재>

<기사 2면에 계속>

총동창회관 개관 - 새 역사 열다

총동창회 사무국 이전, '제2 부평시대' 출범

고객기부자 등 초청, 사전공개 행사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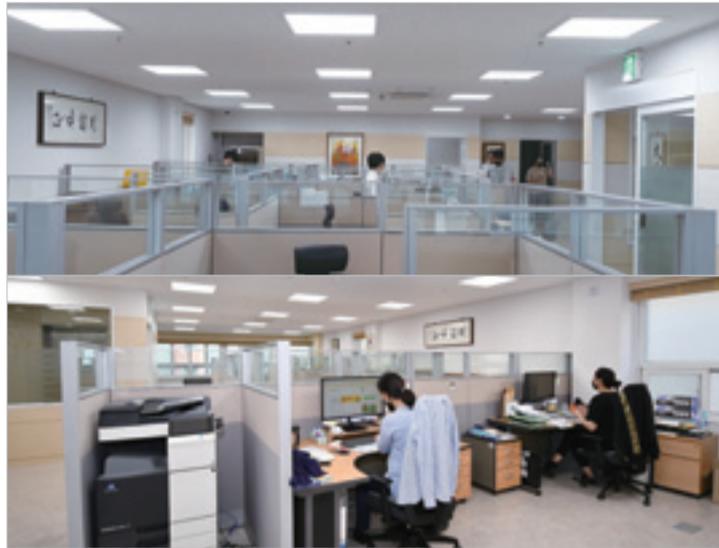
총동창회 사무국은 지난 6월 1일 동창회관 5층 내 입주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로운 역사를 가꾸고 엮어갈 새 보금자리가 기능 작동 개시의 불을 밝혔다. 실질적인 '제2 부평시대'의 시작이다. 이전의 골든오피스텔 소재 사무국과는 차원이 다른 위상이다. 6층 건물의 오너로서 핵심에 포진한 컨트롤 타워처럼 느껴진다.

총동창회 사무국에는 총동창회장과 용마장학재단 이사장 좌석이 건물 입구 방향에 놓인 테이블을 중앙에 두고 마주하고 있고, 옆자리에 동창회관장 좌석이 마련돼 있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직원 2명, 동창회보 편집주간과 영상편집위원 등의 좌석이 배치돼 있다. 또한 30명 수용 중회의실과 20~10명 수용 소회의실이 입구 반대쪽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서류 창고도 갖췄다.

사무국은 입주이사를 마치자마자 회관 소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른바 동창회관 사전공개행사이다. 6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회관 개관 현판식 때는 많은 동문들의 방문으로 혼잡스러워 건물 전체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을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다.

사전공개행사 참석 대상은 고객기부자(2일),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3일), 운영위부회장단(4일), 그리고 고문·자문위원·일반위부회장단(5일)이다. 동기회장, 직능·동호회 회장, 지구회장들은 별도 일정을 잡아서 소개할 계획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을 방문할 수 있다.

사전공개행사는 오후 6시 30분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전 층을 둘러보면서 관련 설명을 듣고 난 뒤 4층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 1일 총동창회관 5층에 입주한 총동창회 사무국 정경.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개관식 주요 초청 대상자로는 문재인(25회) 대통령, 정대호 경남고 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 동문 국회의원, 고객기부자, 고문단, 임원 전체, 각 기수 동기회장(사무국장 포함), 직능·동호회 회장, 재정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동창회장, 9개 지구동창회 회장, 부산 지역 고교동창회(부산고, 동아고, 동래고, 개성고, 부산여고, 경남여고 등) 회장 등이다. 여기에 각 지구동창회 최고 원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등이 초청됐다.

제22회 용마골프대회 가을로 연기

“총동창회관, 인재 배출 보금자리 돼라”

총동창회에서 '안택기원제' 열어



총동창회관 안택기원제가 지난 5월 18일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이 인재(人材)와 준걸(俊傑) 배출의 보금자리가 되고, 그 어떤 사특(邪惡·못되고 악함)한 기운이 얼씬 못하게 해달라.”

총동창회는 지난 5월 18일 오후 리모델링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총동창회관 5층 사무국 자리에서 '안택기원제'를 열었다. 양산 상북면 소재 청운사 주지 영봉 범용 스님을 초대해 천도제를 겸해 총동창회관의 번성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다.

이날 기원제는 동문들의 성원으로 마련한 총동창회관이 한 치의 부정(不淨)도 타서는 안 된다는 염원을 담았다. 특

히 동창회관 건물이 인수 이전에 요양병원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이곳에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도하자는 순수한 뜻에서 결행된 것이다.

이 행사를 집전한 영봉 범용 스님은 “요양병원에 들어선 경남중고 동창회관이란 이야기를 듣고 지극정성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본인 스스로 “경남중 28회 졸업”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관 건물 건축주(박용일·16회), 직전 소유주(이부성·19회)가 용마 동문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인연의 묘함을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기사 1면에서 받음>

‘우리는 해냈다’는 자긍심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는 하나’라는 결속력을 확인하고 가슴에 새겼다.

지난 5월 26일을 기해 21억3,284만원이 모금됐다. 모금 참여자는 모두 1,209명이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2018년 3월 7일 취임 이후 시작하여 2년2개월여 동안 진행했던 운동의 결과이다. 고객기부자 36명에 14억8,420만원, 일반기부자 1,173명에 5억9,102만원, 동기회 8곳 3,850만원, 지역동창회 등 기타 단체 합계 1,912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기부자는 목표 1,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5회, 27회, 29회, 30회의 막판스퍼트가 큰 힘이 됐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같은 괄목할 만한 모금 실적은 동문의 염원이 결집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용마의 저력이자 역량의 증거이다. 경남중고 동문들은 이번에 모교와 동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확인케 됐다.

이번 모금 이전 개인기부자는 약 450명이다. 이들의 기부금이 사실상 동창회관 구입에 있어 토대가 됐다. 실제 회관 구입 참여 동문 숫자는 모두 1,700명 가까이 된다. 기부자 명단은 회관 벽면에 영원히 기록된다. 기부 참가자는 개인은 물론이고 동문 모두가 자긍심과 자랑으로 삼아도 될 표징이 될 것이다. 권우일(45회) 동문이 회관 벽에 부착할 기부자명판을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개관일 전까지는 부착이 완료될 예정이

다. 기부자 명판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이를 위해 약간의 추가 공간은 마련해 두었다.

이번 모금 결과를 두고 다양한 기록 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록 순위를 매기려고 경쟁을 유도한 바는 없지만, 동창회관 기금운동에 기여 참여하면서 보다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보낸 개인과 기수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는 의미이다. 고객기부자들에게는 총동창회장의 감사장이 전달된다.

이번 모금에 1회부터 77회 사이 65개 기수가 참여했다. 가장 부각된 사실은 박 총동창회장 동기인 25회 참여자가 무려 228명(고객기부 3명 포함)에 달했다는 점이다. 모금 총액수도 3억2,105

만원이다.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총동창회장 기수라는 책임의식도 작용했겠으나, 박 총동창회장의 개인적 리더십과 그동안 쌓아온 ‘덕’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각 기수별로도 참여자수와 모금액이 현격히 비교 돼 이목을 끌었다. 25회 다음으로 참여자수가 많은 기수는 30회와 40회였다. 나란히 69명을 기록했다. 모금액수에서는 25회 다음으로 30회, 38회 순이었다. 모금액은 각 2억800만원, 1억980만원이었다. 고객기부가 큰 힘이 되었던 결과이다.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운동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막이 올라가고 있다. 수시기부시스템은 항상 작동 중이다.

개교 100년 역사의 '대단원'...지향점 세울 때

'영광의 시대' 창조 위한 인재 배출 방안 찾아야

용마의 '제2 부평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6월 20일 개관을 앞두고 동문사회에서 회자되는 이 말에 함의된 의미를 묻는 것이다. 총동창회의 새 지평과 신기원을 이야기하지만, 막연함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 해답은 골든오피스텔에서의 '제1 부평시대'에서 찾아야 한다. 총동창회는 제1 부평시대를 굴곡도 겪었지만, '영광의 27년'이라고 자평한다. 무수히 배출된 동문 인재가 바로 그 증거이다. 제2 부평시대의 좌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많은 훌륭한 인재 배출로 '용마의 성공시대'를 다시 열어 가자는 뜻이다.

제2 부평시대는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2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100주년 이후에는 그 위상에 걸맞은, 시스템 또는 조직의 혁신이 가져올 제3의 부평시대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향후 22년의 시간은 우리의 우리가 도전하고 응대해야 할 현실이다. 지금 개교 100년 역사의 '대단원(大團圓)

의 막이 열리고 있다. '찬란한 영광의 시대' 창조가 우리의 과업이다. 총동창회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깔 대(大)프로젝트였다.

이제는 동창회관 개관 의미에 부합하는 새 지평을 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모색할 때이다. 모교 개교 100주년에 맞춰 비범한 비전을 가지고 이를 차근차근 실현할 과제를 찾아야 한다. 80주년, 90주년이 중간점검 시기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문을 열어 준다.

동문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과 행사들, 그리고 모교지원 사업 등은 지속 발전 시켜나 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과 우애를 보다 더 결집하고 심화시켜 새로운 미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넘어야 할 벽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 당장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돌발한 코로나19사태는 인류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이른바 신사조의 출현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인공지능로봇의 활약과 비대면사회의 활성화가 동문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문 간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 동창회 활동이 이 같은 사회 조류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순풍 탈지는 총동창회 집행부의 의지와 실천력, 동문들의 협조와 성원에 달려 있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더 각박하고 건조할 가능성이 있는데에 의견이 모아진다. 그럴수록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 선후배 동문 간 우정을 나누는 동창회 활동은 역설적으로 더욱 기다려지고 간절한 어울림이 자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된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용마의 보금자리인 총동창회관은 그런 의미에서도 큰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회관 개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인식은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유기체로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과 이를 보다 탄실하고 명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성공 여부는 사람에게 달렸다. 인재의 중요성을 말한다. 총동창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가져야 할 비전의 핵심이 바로 인재의 발굴과 지원, 그리고 양성임을 강조한

다. 인재는 스스로 크는 이도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이도 있다. 명문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인재의 보고(寶庫)'라는 말을 들어왔다. 지속적인 인재 배출이 요구된다. 능력 있고 유능한 동문, 잠재력이 큰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도와주고, 또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동문사회의 전통과 미덕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인재의 산실은 모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교의 재학생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하면서 간직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 다양한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둘 때 경남중고의 전통과 명예는 더욱 빛나는 것이다.

총동창회가 그려야 할 '큰 그림' 속에서 지향할 바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총동창회관 개관의 진정한 의미를 동문 모두가 곱씹어 봐야 한다. 특히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 리더급 동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이에 대해 진지한 대화와 모색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위하여.



총동창회관 1층 카페 '1942 KN' 내부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렇게 달라질 수가...” 감탄사 연발

리모델링 완료 총동창회관에 찬사 쏟아져

총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가 지난 5월 말로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신축 건물로 착각할 정도로 깔끔한 자태를 갖췄다. 회관 건물을 둘러본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동창회관 외관을 살펴보면, 건물 정면에서 볼 때 현관 왼쪽에 '경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 현판이, 오른쪽에는 층별 안내가 걸려 있다. 1층 외벽에는 '1942 KN CAFE & RESTAURANT', 2층 외벽에는 'BILLIARD KN', 3층 외벽에는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간판이 걸려 있다. '1942 KN'은 푸른색이며 나머지는 흰색이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벽에 총동창회관 개관 연혁과 역대 총동창

회장 연대기가 부착돼 있다. 정면으로 카페와 식당을 만날 수 있다. 카페는 40석, 식당은 32석이다. 카페와 식당은 당분간 총동창회서 직영할 계획이다. 2층은 당구장이다. 당구대는 최고의 제품으로 7개(대대 2개, 중대 5개)를 배치했다. 당구에 식견 있는 동문들은 "고품질"이라며 엄지척한다. 2층에는 덕형리그 사무실도 있다.

3층은 권우일(45회) 동문 회사가 공간 전체를 임대해 사용한다. 지난 5월 26일 입주, 업무를 보고 있다. 광고대행사를 경영하는 권 동문은 "직원들과 거래처 손님들이 깨끗하고 산뜻한 분위기라면서 업무 환경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한다"면서 "23년 된 광고업무를 총동창회

관의 좋은 기운을 받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4층은 공간을 나누어 동문들에게 임대했다. 공동 회의실 공간도 있다. 25회 동기회 사무실이 들어왔고, 동호회로 경야회, 경미회, 용마코러스가 입주를 계약했다. 또 개별임대료 (주)용마홀딩스(강부덕·20회), 라오스명예영사관(임무홍·25회), PLS Architects(신혁규·51회·건축사사무소), 미존테크 by 산타(진상영·45회·인조대리석 직영 사무소) 등이 입주한다.

5층은 총동창회 사무국이 사용한다(2



권우일(45회) 동문

면 사무국 기사 참조), 6층은 69명을 수용하는 강당(대회의실)이 있다. 김백권(46회) 동문이 기증한 비행기 기념석 69개가 배치됐다. 5층 내 회의실과 함께 빔 프로젝트 시설이 갖춰져 있다. 6층 회의실 밖은 옥상 휴게실이 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운행된다.

총동창회관 건물의 하이라이트는 1층 로비와 계단에 있다. 1층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로비가 있다. 이곳에서 6층까지 계단에 경남중고 모교와 동창회의 78년 역사가 요약 정리돼 있다. 1층 로비에는 이번 동창회관 기금 모금운동에서 고액기부한 36명의 동문 열굴부조동판이 부착돼 있다. 1991년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동창회보 제233호에 그 결과를 수록한 내용을 떼어서 소개하고 있다. 또 박형규(43회) 동문이 제작한 경남고 정경 모형이 있고, 기념품 판매 전시테이블이 있다.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과 기념 머그잔과 모자, T셔츠 등이 있다.

1층에서 계단을 오르면 벽면에 역사 기록 판넬이 전시돼 있다. 6층까지 하나 하나 읽어 가면 경남중고의 78년 역사가 금방 이해된다(6면 미니역사관 기사 참조). 모교를 졸업한 동문은 물론이고 재학생 후배들에게도 동문 역사교실이 된다.

새 역사 시작의 힘, 1,200여 동문 정성에 감사

29년 전 꾸었던 꿈 실현... '명품 회관' 갖게 돼 큰 행운
78년 역사가 녹아 있는 미니역사관 꼭 둘러보길 권유

총동창회관 개관을 맞으면서 -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는 현판식 행사를 갖는 2020년 6월 20일은 개교 후 78년 동안 묵혀 있던 숙원을 푸는 획기적인 날입니다. 말하자면 1969년 7월 20일 최초로 달착륙을 한 닐 암스트롱이 첫 발걸음을 댄 인류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동문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회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1,200여명의 동문들이 모금에 동참한 결과로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수많은 동문들이 회관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 1991년에 조사한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89.2%의 동문이 모교 부근 시내에 5층 또는 7층의 건물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29년 전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행운을 가진 우리는 경중과 경고에서 5~10분 거리에 6층짜리 연건평 535평의 회관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구슬' 꿰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초량에 있었던 향군회관을 동창회관으로 구입 계약을 했으나 그 당시 야권의 대표주자 김영삼(3회) 동문이 전두환정권과 대척점에서 있다는 이유로 이학봉(11회) 동문을 통해 계약파기 압력을 받고 계약취소를 했던 우여곡절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회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경제력 있는 동문들의 숫자도 꽤 있어 가능성만 확인해 왔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침내 솔선수범 자세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 총동창회관'을 가졌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관 구입 당사를 되돌아봅니다. 동창회보 공지를 통해 동문들의 도움으로 회관후보지를 물색해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작년 11월 29일 이경재(13회) 동문이 5천만원, 11월 30일 정진(47회) 동문이 3천만원 연이틀 고액기부로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자 직접 발품팔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알게 된 광안리 소재 부동산중개소에서 추천한 건물이 총동창회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골든오피스텔 바로 옆 천수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건물의 소유주는 이부성(19회) 동문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2월말로 폐원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3자와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엉뚱한 마지막 제안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에 알게 되어 하루 만에 매매를 성사시켰는데 동문인연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은 박용일(16회) 동문이 신축했으니 동문인연의 끈이 처음부터 닿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리모델링 설계, 시공, 감리 등 직접공사에 약40여명의 동문이 참여했으며 휘호, 기념품, 협찬 등 간접지원에 약15명 등 총 55

명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완공시점에 이르러 사무국 입주 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안택기원제를 갖기로 결정하고 기원제를 부탁한 청운사 주지스님도 경남중고총동창회관 안택기원제란 얘기를 듣고 스스로 본인이 경중 졸업 28회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작과 과정과 끝의 인연이 동문들과 닿아 있는 회관입니다.

그때 계약 못했다면 구입 못해

천수요양병원을 찾기 전 계약을 염두에 둔 건물은 중앙동에 있는 7층 건물로 55억원에 계약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월수익은 은행이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수 유지비용을 고려하면 부담이 되었습니다. 계약 결정을 미루던 차에 현재의 회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회관 개관을 앞두고 돌이켜보면 아찔합니다. 12월 초에 구입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으면 연말연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바로 코로나19사태를 맞게 되어 회관을 2020년 내에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문들의 좋은 기운 덕분에 오늘의 회관을 갖게 되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골든오피스텔에 있던 기존 사무국은 매매 대신에 임대로 유지하려던 의도가 세금계산서 처리문제로 불가해 같은 건물 내 원매자에게 팔게 되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회관 개관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부심의 요람이 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둘러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이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으로 모교를 돕기 위한 방편이 강구되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1층의 카페와 식당, 2층의 당구장, 3층과 4층의 임대사무실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공간이 5층과 6층에 자리했습니다. 이같이 구성된 회관은 동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1층에서 6층까지 계단부 측면을 이용한 '미니역사관'에는 1942년 개교부터 6만8천여명을 배출한 모교의 발전사, 야구부의 탄생부터 프로선수들을 배출하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기록들, 1968년 동창회보를 발행하기 시작한 총동창회의 변천사, 국내와 해외 각 지역동창회의 연대기 등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78년의 역사가 녹아 있는 미니역사관을 가족과 함께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회관은 새로운 구심점

회관은 앞으로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경중, 경고 재학생과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필수 방문코스로서 선배들의 화려한 발자취를 따르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후배들과의 연결이 없는 동문회는 소멸합니다.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박종찬 총동창회장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후배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애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회관건물 입구 우편함에 신문고함을 개설합니다. 우편으로 '수신: 총동창회 신문고함 앞'으로 사연을 보내거나 직접 우편함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함의 성공여부는 시간과 함께 지켜보아야 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칭 '신문고위원회'를 만들어 일단 제가 초대회장이 되어 마음을 같이하는 몇몇 독지가를 신문고위원으로 모시고 시작해볼 작정입니다. 신문고위원회는 특히 후배들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 의사가 있는 동문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수금 4천명 재도전

2022년 4월30일이 되면 모교가 개교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회관 내 미니역사관 자료발체를 위해 동창회보의 내용을 섭렵해 본 결과 역대회장들이 모교사 발간을 2차례 시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60년사, 70년사 발간 모두 실패했습니다. 70년사 경우 총동창회에서 1억원, 재경동창회 2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편집위원장까지 결정했지만 실패했습니다. 80년사 발간을 위해 제작년 재경동창회와 기본회의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편찬을 위한 조직구성 제안서를 보냈는데 묵묵부답으로 있던 재경동창회가 독자적으로 80년사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3차 실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80년사 발간이 실패로 끝나면 100년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년 연로해지는 선배님들을 고려할 때 이걸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동창회에서는 차후 100년사 발간의 토대라도 다져놓을 방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기록물인 동창회보를 충실하게 발행하기 위해 구독료 수금 4,000명에 올해 마지막으로 3년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5월 26일 현재 약 2,256명이 납부를 했으므로 남은 6개월 동안 1,700명 동문들의 관심을 받으면 됩니다. 이 지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연간 회보구독료 3만원의 납부는 동문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구호를 외쳐봅니다.

"우리는 경남중고인이다. 후라 후라 후라."

용마의 저력 '뒷심 기부'...우정과 사랑의 심장 고동쳤다

부착된 '동판'에 감동, 부친 이름으로 고액기부 누군가 김영삼문재인 전현대통령 기부' 헌정

기부문화에서도 용마의 저력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0일 마감한 총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에서 경남중고 동문 용마들은 '뒷심'을 '확실히' 발휘했다. 총동창회는 이번 모금운동을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말 일까지로 기부시한을 정했었다. 일반 기부자 800명을 기록했다. 더 많은 동문의 참여를 위해 일반기부자 1천명 달성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지난 5월 20일 까지 연장했다. 또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월 26일 기준 참여자는 1,209명이었다. 4개월 스무날 동안 409명이 기부에 동참한 것이다. 기존의 모금기간 참여자 800명의 51%에 이르는 수치이다. 늦게 발동 걸린다는 경상도 사나이의 기질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야깃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기부자수를 특정 날짜별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지난 3월 21일 기부 종료 D-60일의 일반기부자수는 855명이었다. 고액기부자 35명을 합치면 총 890명이었다. 새해 들어 81일간의 실적이 55명 증가였다. 향후 매일 평균 2명씩 10만원 이상 일반기부에 동참하면 전체 1,000명 초과가 실현될 수 있었다.

3월 30일 D-51일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모금운동 마지막 불쏘시개라면서 3천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이날까지 일반기부자수 878명, 고액기부자 35명 등 기부자 총계는 913명이었다. 9일 동안 23명 증가했다.

D-28인 4월 22일 드디어 기부자 1천명 고지를 돌파했다. 31회 박세환 동문이 그 영광을 차지했다. 23일 만에 87명이 늘었다. 거의 매일 4명 가까이 늘었다. 그날로부터 5월 26일까지 34일 만에 209명이 증가했다. 매일 6명 이상 막판 기부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러니 '용마 저력'을 입증했다는 말이 나온다. ○... '뒷심' 발휘의 선도적 역할을 한 기수는 27회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중순까지 20명 정도에 머물렀던 일반기부자가 마감 결과 68명으로 집계됐다. 두달 새 48명이 증가했다. 단기간에 '역시나'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지난 3월 24일 호수에 거주하는 장세영 동기가 기부를 하면서 동기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이날부터 27회는 거의 매일 연속릴레이 기부를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 오전 총 51명을 기

록했다. 기부릴레이는 47명까지 이어졌다. 고인인 동기생들 이름도 올랐다. 우정을 나누던 친구와 함께 동창회관 벽에 이름을 새기려는 동문의 기부공헌이었다.

장 동문은 그 뒤 밴드를 통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님들께.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기억에 남는 선후배님들을 총동창회관 명판에 함께 등록했으면 합니다. (10만원의 기부를 통해). 동문 경남중고 은사님들, 동문 교수님, 동문 정치인, 동문 친구들(고인도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잔잔한 감동의 파문을 던진 글이었다.

박 총동창회장은 기부참여자수에서 압도적 우위인 '특등 25회'를 제외하고, 이 시점에서 27회가 60명 고지에 올라 선두에 섰던 40회와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다. 결과는 27회가 68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60대 후반의 나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정과 의리에 심장이 뛰고, 사랑의 불꽃이 가슴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故) 김영삼(3회)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10만원의 기부금이 1,027번째로 입금됐다. 유족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문재인(25회) 대통령 이름으로도 10만원이 기부됐다. 앞서 '존경하는, 기억에 남는 선후배님들을 10만원의 기부로 총동창회관 명판에 함께 등록하자'고 제안했던 장세영 동문의 선행이 아닌가 하고 추정만 하고 있다. 굳이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이의 뜻을 존중해서이다.

○...지난 3월 31일 D-50일에 의미 있는 기부가 들어왔다. 52회 동기회가 1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연초에 동창회보 구독료 64명분을 거둬 일시에 납부한 뒤 4월에 36명분을 추가로 납부해 100명 목표 달성을 완성해 박수를 받았던 기수이다. 후배기수에서 이 같은 모교와 동문 사랑을 보여주면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여간 큰 힘이 아니다.

김현진 동기회장은 "처음 총동창회관 관련 이야기기를 들었을 때, '과연 가능할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진행 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면서 "총동창회관 리모델링이

6월 개관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 기쁨을 동문 선후배님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동기회 기부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애쓰신 모든 동문 선후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막판에 기부가 쏟아지면서 수시기부 명칭부여자도 늘었다. 이상수(23회) 동문이 150만원을 추가 기부, 총 500만원으로 브론즈등급 기부자가 됐다. 5월 4일 1,084명째 기부이다.

○...박 총동창회장은 지난 5월 1일 밴드를 통해 흥미로운 기부 통계를 소개했다. 개인기부자 숫자로 홀수와 짝수기수 비교 내용이다. 첫째 이날까지 기부자가 한 명도 없는 (고참)기수는 2, 4, 8, 10, 12회였는데 묘하게 모두 짝수기수였다. 둘째 1회부터 54회까지 기부자 중 홀수기가 640명, 짝수기가 364명으로 집계됐다. 참여기여도가 홀수기가 월등했다. 셋째 40회 이후는 짝수기수가 더 활발하게 동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박 총동창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홀수기의 용

성'이 지속할 것인지, '짝수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인지..."라면서 "선의의 청백전 역사가 펼쳐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확률상 홀짝 밸런스를 기대하면서 짝수기수의 마지막 파이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6일까지 모금 집계 이후에도 기부가 계속 된다. 이번 동창회보 집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감동적인 미담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5월 29일 오후 동창회관 마무리 작업 현장에 박치호(27회·박치호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동문이 동창회관 기금 3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전해졌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부자 명단에 부친 이름을 써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박 동문의 부친은 박태현 은사였다. 박 은사는 경남고에서 교감 재직 2년 포함, 무려 17년을 봉직했다. 많은 동문이 박 은사를 기억했다. 박 은사는 '아주 엄한 스승'이었다고. 박 동문은 전날 동창회관을 방문, 고액기부자 동판 설치에 감동 받아 고액기부를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총동창회관 기금모금운동 1,000번째 참가자 박세환(31회) 동문 축하연 기념촬영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1,000번째 기부자 영예 박세환(31회) 동문 동창회관 모금운동 마감 D-28일...축하연 개최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운동에서 1,000번째 참가자는 박세환(31회) 동문이었다. 지난 4월 22일 실현됐다. 모금 마감일 D-28일이다. 이날 오후에 발표된 1,000번째 참가자는 29회 정란 동문이었다가 집계 누락자 한 명(한성수·44회)이 밝혀져 영광은 박 동문에게 돌아갔다. 누가 행운의 여신을 변덕쟁이라 했는지...

총동창회는 1,000번째 기부를 축하하는 이벤트 자리를 지난 4월 29일 오후 해운대 경복궁 식당에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주인공 박 동문과 총동창회 집행부와 박 동문의 동기생인 집행위부회장 2명(류명석, 박종호)이 참가했다.

박 동문은 "큰 기여도 아니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동문은 이 자리에서 박세철(25회) 운영위원회 부회장의 아우로(옥동훈 사무총장의 눈썹미로) 밝혀져 뜻을 깊게 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에 많은 동문이 참여해줘 고맙다. 오늘 1,000번째 기부자를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 박 동문을 비롯해서 모든 동문의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박 동문에게 사비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용마 78년사(史)의 기록 ‘미니역사관’ 탄생

총동창회관 1~6층 계단에 역사 기록 게시판 부착 총 178개 판넬...박 총동창회장 혼신의 힘 다한 성과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에 가면 용마의 78년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총동창회관 내부에 역사를 축약한 기록들을 정리, 항목별로 가지런히 배치해 두었다. 6층 건물의 계단 층층마다에 ‘역사 게시판’을 부착했다. 단순한 계단 통로가 발상의 전환으로 ‘미니역사관’으로 재탄생했다. 계단 너비가 커서 전시실로 안성맞춤이다.

미니역사관에는 모교와 야구, 총동창회 등 3개 범주 판넬이 제작되었다. 너비 300mm, 길이 600~900mm 규모이다. 총 178개이다. 모교 62개, 야구 44개, 총동창회 72개이다. 권우일(45회) 동문 회사가 제작을 맡았다.

총동창회관 방문 동문은 모교와 동창회가 그동안 쌓아온 내력을 이해할 수 있다. ‘용마 가문’의 역사 현장학습에 적격이다. 일제치하 암흑기에서부터 오늘의 코로나19사태와 언택트시대 도래까지 격랑의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빛나는 용마의 족적을 담았다.

특히 후배 기수들은 이 같은 역사를 계승해 지속적으로 엮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교편은 1942년 개교 당시의 스토리 요약에서부터 2020년 44회 동기회의 랩소도 타격교정기 경남고 야구부 기증까지 78년 동안의 모교 역사를 연도별로 압축해 놓았다.

야구편은 경남중고 역사와 전통 자랑 요소 중 핵심이라 제작했다. 1945년 야구부 창단에서부터 2020년 전반기 야구경기 전면 중단까지 경남중고 야구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동창회편은 1950년 임채홍(1회) 초대회장 취임에서부터 2020년 총동창회관 개관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동창회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미래의 좌표를 일러주고 있다.

미니역사관을 두고 혹자는 용마의 또 하나의 ‘성지(聖地)’가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역사관 게시판 판넬 하나하나에 경남중고 용마들이 일궈놓

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판넬에 실린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내 엄선하여 채록하였는지, 하는 생각에 도달하면 경이를 느끼게 된다. 미니역사관이 거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놀라게 된다. 이는 온전히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개인이 3개월여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작업한 ‘헌신의 산물’이다. 박 총동창회장은 동창회보 축쇄판(1~4집)을 살살이 훑어가며 내용을 정리하고, 모교를 방문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았다. 오로지 ‘명품 동창회

관’을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특히 모교의 초창기 변천사는 지금까지 여러 갈래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혼란기여서 변천사가 복잡하다. 동시대를 살았던 동문들의 기억 역시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박 회장이 일목요연하게 표물로 정리했다.

총동창회관 내 역사관은 그야말로 박 총동창회장 개인의 역작(力作)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모교와 동문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안용백 교장 흉상, 동창회관 내 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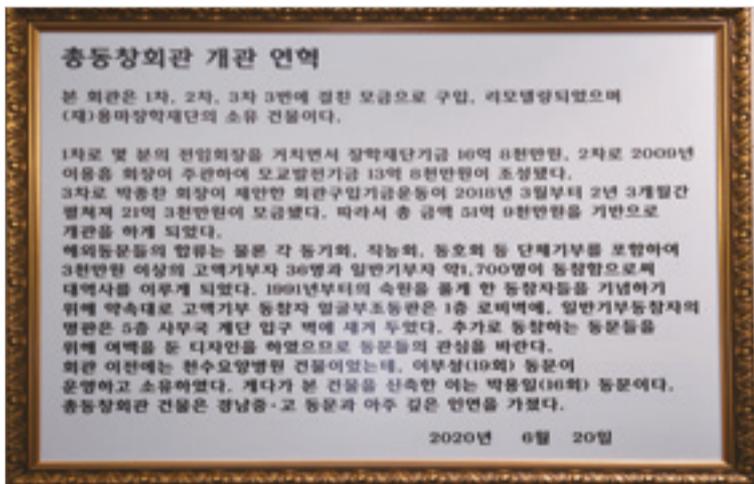
경남고 교정에 자리했던 안용백 초대교장(일제 치하의 일본인 교장은 제외) 흉상(사진)이 지난 4월 말 철거돼 총동창회관 내부 1~2층 계단 중간지점에 안치됐다.

지난 2009년 재일교포 강주홍(7회) 동문이 모교에 장학금 5억원과 함께 안 교장 흉상을 제작·기증했다. 강 동문은 1947년 경남중(5년제)에 입학한 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했다. 강 동문은 안 교장의 지도와 사랑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 흉상과 장학금 기증은 모교와 안 교장에 대한 보답으로 결행된 것이다.

안 교장은 1945년 10월 29일 취임, 1950년 9월 23일 전라남도 문교사회 국장으로 전보되기까지 5년 동안 경남중을 초인적 헌신으로 재창조했다. 용마들이 광복 이후 혼란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한 등댓불과도 같았다. 이는 그의 제자 모두가 그를 은인으로, 모교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교장은 경남중고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사표(師表)로서 기억되고 있다.



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한 등댓불과도 같았다. 이는 그의 제자 모두가 그를 은인으로, 모교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교장은 경남중고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사표(師表)로서 기억되고 있다.



총동창회관에 들어서면 곧바로 만나게 되는 총동창회관 개관 연혁.(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현판 휘호, 김영일(16회) 동문 작품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건물임을 알리는 현판(□□) 휘호(사진 왼쪽)는 김영일(16회·사진) 동문의 작품이다. 회관 현판 오른쪽(내부 기준)에 부착돼 오는 6월 20일 현판식을 갖는다. 현판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160cm이다.

서예 이력 60년의 김 동문은 김영삼(3회) 전 대통령의 서예를 지도한 인물로 유명하다. 서예 개인전 3회(서울, 부산, 마산)를 연 바 있는 김 동문은 한문체 작품에는 호(號)를 ‘平江(평강)’으로, 한글체 작품에서는 ‘늘물’을 사용한다. 김 동문의 성정(性情)이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닿아 있음을 엿보게 한다.

김 동문은 동창회관 개관 축하 휘호도 보내왔다. 내용은 ‘自強不息(자강불식·스스로 힘을 쓰고 몸과 마음을 가다

듬어 쉬지 아니함·사진 오른쪽)으로 역경에 나오는 말이다. 김 동문은 “새해 덕담으로 정월에 써둔 글씨인데 용마들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하고, 코로나19사태도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경남중 교사 2층에 걸려 있는 한글 이은상의 애국시가 김 동문의 작품이다. 경향신문, 신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동문은 오래 전 동창회보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영삼 총재 특별 보좌역, 한국자원재생공사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총동창회관 현판 휘호 선정 과정에서 김 동문 외 최동완(21회) 동문도 한글 판본체 붓글씨 작품을 보내왔다. 최 동문의 휘호 역시 뛰어난 작품으로 5층 사무국 현판으로 사용한다. 한국서도협회 운영위원으로 초대작가인 최 동문은 시집을 3권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숙원 이뤄낸 용마들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

**“박종찬 회장의 불같은 추진력과 헌신적 동창애에 탄복
동문 간 응집력 강화될 것...중지 모아 모범적 운영하길”**

정행권(9회) 고문, 총동창회관 방문 소회 밝혀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부임한 지 2년여의 짧은 기간에 총동창회관 마련이라는 큰 위업을 달성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박 회장의 불같은 추진력과 헌신적인 동창애에 탄복했다. 너무 수고했고 고맙다.”

지난 5월 20일 오후 총동창회 사무국을 방문한 정행권(9회) 고문의 첫 일성이다. 총동창회 조직에서 최고참 선배기수로서 제28대 총동창회장을 역임(2004년)한 정 고문. 총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선걸음으로 왔다고 한다.

박 총동창회장 등과 함께 총동창회관을 둘러본 정 고문은 “우리 선배들이 30여년간 못 이룬 숙원을 이뤘다. 동창회 역사상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박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집행부 및 여러 용마동문들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대단한 업적이지 쾌거”라면서 감사의 말을 계속 이었다.

정 고문은 “예전에 발전기금 등이 좀 모아졌을 때 ‘회관 건물을 사자’는 주장과 ‘더 모금해서 회관을 갖자’는 주장이 팽팽했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

금 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건물은 나중에 구입하자로 결론이 났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버려 동창회관 건립이 숙원사업이 되었다”고 지난 일을 회고했다.

정 고문은 동문들이 기부한 정성을 모아 동창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줬다. 성심 성의껏 행한 기부에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미국에서 고액기금을 보내준 조동훈(9회), 고(故) 손석보(21회) 동문의 스토리는 정말 감

동적이었다”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부한 조 동문은 옛적 중학교 1학년 4반 같은 반의 자랑스러운 친구로서 경남 중·고 동문임을 항상 자랑으로 여긴다”고 회고했다. “당시 교복 소매 끝에는 쌍백선이 있었다. 부산시민 특히 젊은이에게는 쌍백선 교복을 입은 경남중 학생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동창회관 건립 이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종찬 회장이 연부역강(年富力強·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하나 전문가와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길 바란다. 향후 동문 간 응집력은 더 강화되고 더욱 질겨지지 않겠나. 잘 되리라



정행권(9회) 총동창회 고문이 지난 5월 20일 이전 사무국을 방문,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본다.” 정 고문은 내친김에 하는 말이라며 젊은 후배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했다. “훌륭한 후배들이 많겠지만... ‘인생은 요행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꾸준히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의 문에 도달할 수 있다. 굳센 의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젊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정 고문은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면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모교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응적 견지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동문 모두가 미력이나마 ‘모교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고 호소했다.

이 자리서 정 고문은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다. 중1 때부터 거주지가 부산서구 대신동인 정 고문은 올해 85세의 나이에도 요즘 1주일 서너 번 바깥나들이를 한다고 한다. “오라는 데가 많다. 가려서 나간다. 예전 감투를 많이 썼던 때문이다. 남들이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떠안았다. 부산시체육회 관련 여러 자리에 올랐다. 부산시새마을운동 회장도 맡았다. ‘덕’을 쌓은 셈이다. 그랜 사업도 괜찮았다. 경중·경고 동문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현재 49년째 라이온스클럽 활동(1988~1989년 총재 역임)을 하고 있는 정 고문은 “지금도 주요 행사에는 꼭 참가한다. 완전한 평생봉사”라면서 “어머니의 유언이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하셨는데 잘 지킨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근심 있는 동문은 나를 불러 손잡길...”

동창회관 기념품 제작, 판매 모자·티셔츠·회보 축쇄판 등 전시

총동창회는 동창회관 방문자들에게 기념품을 제작, 판매한다. 품목으로는 모자, 후드티와 여름티셔츠 등이다.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도 판매 품목에 든다. 모자와 옷에는 ‘1942 KN’ 마크가 새겨진다. 가격은 시중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기념품은 동창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모자, 옷은 최유탄(49회) 동문이 제안한 판매선물용 제품이다. 총동창회는 기념품 판매를 수익사업화하면서, 품목 다양화도 고려하고 있다. 동문들이 좋은 아이템을 제안할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축쇄판 제4집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한다. 가격은 3만원이다.

동창회관 입구 우편함에 ‘용마신문고함’ 설치 개인의 ‘어려움’ 해소책 모색해 줄 위원회 출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김남조작사, 김순애작곡의 가곡 ‘그대 있음에’의 첫 구절이다. 1964년 한국일보사가 새해맞이 기념으로 위촉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간절한 그리움과 뜨거운 정이 넘치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이다. 이 노래 가사의 ‘그대’를 어려움에 처해 근심 중인 용마 동문으로 치환해 생각해 보면, 동문애가 물씬 느껴진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계기로 애로나 시련을 겪고 있는 동문을 돕는 방안이 마련됐다. 일자리 주선, 재정적 지원, 질병 치료, 법률적 상담 등을 통해 동문 개인이 근심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실행 방안으로 ‘용마신문고’가 동창회

관 현관 입구 우체함에 설치되었다(사진 우측 하단 초록색). 지난 5월 출범한 용마신문고위원회가 관리한다. 신청 접수와 동문 면담과 집행 등 실행 전체 과정이 일체 비밀리에 진행된다. 동문 누구든 신문고에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용마신문고위원회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사적 단체이다. 참여 위원조차도 누구인지 모르게 할 계획이다. 도움 요청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자존심 손상은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 총동창회장은 “후배 동문으로부터 ‘동창회관 개관이란 외형적 성장과 발전을 보았다. 이제 어려움에 처한 동문을 돕는, 동문애를 보다 내실 있게 펼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좋은 생각이 궁리 끝에 용마신문고를 생각해 냈다. 기부와 자선에 기꺼이 참여하되 걸로 드러내지 않는 동문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하고 싶은 동문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마신문고가 활성화 하려면 도움 신청과 지원 사례가 늘고,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 위원회의 실행력이 잘 갖춰져야 가능하다. 동문사회가 거는 기대가 크다.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I



어둠이 내린 총동창회관 건물의 멋진 모습.



측면에서 바라본 총동창회관 모습.



총동창회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로비 정경.



경남고 축소 모형.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계단 벽에 조성한 미니역사관 1층 시작 부분.



총동창회관 카페 안에서 관계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총동창회관 식당 내부 모습.



로비 벽에 부착된 경남중고 총동창회 상징 엠블럼(가운데), 모교 교훈(오른쪽), 그리고 1991년 총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동문 설문조사 결과 내용 게시판(왼쪽).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II



총동창회관 4층 동문 공용사무실 입구에 놓인 기념 전시물.



총동창회관 개관 기념 선물로 만든 머그잔.



↑부산 지역에서 최정상급 시설이란 평가를 받는 총동창회관 당구장 내부.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3층 전체를 임대해 입주, 영업 중인 ㈜대경 커뮤니케이션의 내부 모습.



'1942 KN 카페&레스토랑 직원들이 푸른색의 경남고 교복을 입고 영업하고 있다.



맨파워를 자랑하는 덕형리그 사무실이 총동창회관 2층 당구장 옆에 자리잡았다. 테이블, 서가 등 집기가 배치됐다.



총동창회관 4층 동문 공용사무실 내 회의용 테이블.

경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사무국 입구에 세워진 또 다른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현판. 이 작품은 최동완(21회) 동문의 휘호이다.



총동창회 사무국 내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사이 중간 문을 열고 공간을 통합한 모습.



총동창회 사무국 내 총동창회장(아래)과 용마장학재단 이사장 좌석이 소파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총동창회관 개관 - 화보 Ⅲ



↑총동창회 사무국 내 대회의실 벽면에 부착된 역대 총동창회장 사진. 1대부터 35대까지 20명의 얼굴사진이 걸려 있다. 12개의 빈자리도 마련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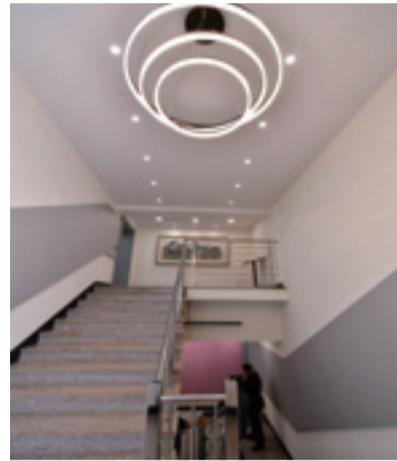


총동창회관 6층 옥외 휴식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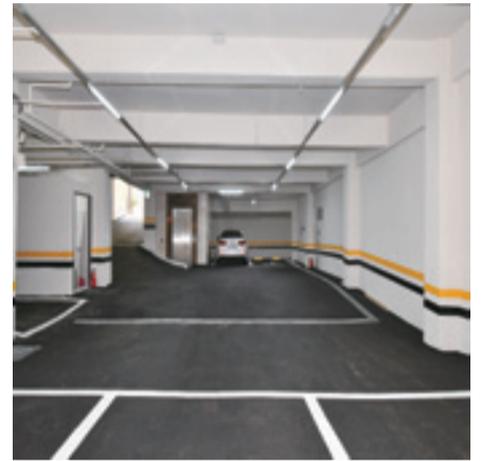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66명을 수용하는 총동창회관 6층 강당 전경. 여객기 승객 좌석을 의자로 배치했다.



총동창회관 6층 계단 모습.



말끔히 정비된 총동창회관 지하주차장.

2018년 3월 이후 모금액 현황 (2020. 5. 26 현재)

기수	일반기부금액(단위:만원)			고액동판자 (36명)	기수 총액
	인원	개인	동기회		
1	1	100	-	-	100
2	0	-	-	-	-
3	2	20	-	-	20
4	0	-	-	-	-
5	3	90	-	-	90
6	1	50	-	-	50
7	3	160	-	-	160
8	0	-	-	-	-
9	2	110	-	3,056	3,166
10	0	-	-	-	-
11	1	20	-	10,000	10,020
12	0	-	-	-	-
13	9	520	200	5,000	5,720
14	7	450	-	-	450
15	6	1,180	-	3,000	4,180
16	4	120	-	5,000	5,120
17	4	130	-	-	130
18	5	250	-	4,000	4,250
19	29	1,580	-	8,000	9,580
20	3	410	-	3,000	3,410
21	9	1,270	-	3,064	4,334
22	4	120	-	5,000	5,120
23	24	790	-	4,800	5,590
24	13	1,850	1,000	5,000	7,850
25	225	11,105	-	21,000	32,105
26	17	1,100	-	-	1,100
27	68	1,480	-	-	1,480
28	27	2,976	-	3,000	5,976
29	47	1,900	-	6,000	7,900
30	67	5,080	-	15,000	20,080
31	61	2,761	-	6,000	8,761
32	16	2,180	1,000	-	3,180
33	15	2,050	350	5,500	7,900
34	26	1,840	-	-	1,840
35	15	450	-	3,000	3,450
36	29	1,230	-	3,000	4,230
37	40	610	-	5,000	5,610
38	28	980	-	10,000	10,980
39	21	1,740	-	3,000	4,740
40	68	3,715	-	3,000	6,715

기수	일반기부금액(단위:만원)			고액동판자 (36명)	기수 총액
	인원	개인	동기회		
41	21	830	-	-	830
42	36	1,170	-	-	1,170
43	18	1,565	1,000	-	2,565
44	18	960	-	3,000	3,960
45	14	610	-	-	610
46	31	560	-	-	560
47	17	440	-	3,000	3,440
48	9	110	-	-	110
49	17	180	-	-	180
50	17	570	100	-	670
51	15	330	-	-	330
52	12	510	100	-	610
53	11	250	100	-	350
54	14	320	-	-	320
55	4	50	-	-	50
56	1	10	-	-	10
57	0	-	-	-	-
58	1	10	-	-	10
59	0	-	-	-	-
60	1	10	-	-	10
61	0	-	-	-	-
62	0	-	-	-	-
63	0	-	-	-	-
64	0	-	-	-	-
65	1	10	-	-	10
66	4	70	-	-	70
67	1	10	-	-	10
68	2	20	-	-	20
69	1	20	-	-	20
70	1	10	-	-	10
71	0	-	-	-	-
72	0	-	-	-	-
73	1	10	-	-	10
74	0	-	-	-	-
75	3	30	-	-	30
76	1	10	-	-	10
77	1	10	-	-	10
일반기부인원	1,173	59,102 5억9,102만원	3,850 3,850만원	148,420 14억8,420만원	기타단체금액 1,912만원
전체기부인원	1,209	총액21억3,284만원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 집계 현황 (2018년 3월~2020년 5월 26일 현재)

- ◆참가자수 : 1,209명
- *기존 기부참여자 : 450명
- *총 기부자수 : 1,659명
- ◆고액기부자수 : 36명
- ◆일반기부자수 : 1,173명
- ◆모금 총액 : 21억 3,284만원
- ◆고액기부자 모금액 : 14억 8,420만원
- ◆일반기부자 모금액 : 5억 9,102만원
- ◆단체기부자 모금액 : 1,912만원
- ◆최다인원 참여기수 :
 - 1위 25회 228명
 - 2위 30, 40회 각 69명
- ◆최고금액 참여기수 :
 - 1위 25회 3억 2,105만원
 - 2위 30회 2억 80만원
 - 3위 38회 1억 980만원

최다인원참여기수

순위	회차	인원	비고
1위	25회	228명	(고액3명 포함)
2위	30회	69명	(고액2명 포함)
	40회	69명	(고액1명 포함)
4위	27회	68명	
5위	31회	63명	(고액2명 포함)

최고금액참여기수

순위	회차	금액
1위	25회	3억2,105만원
2위	30회	2억80만원
3위	38회	1억980만원
4위	11회	1억20만원
5위	19회	9,580만원

“회관 초석 다지기에 동창회 ‘지킴이’로서 최선 다할 터”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 초대 관장

“봉사의 기회...가슴 뿌듯하고 무한 책임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마음 한 곳 모아야 지난 어려움과 아픔들, 숙원 해결하니 보람”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신기원을 열 총동창회관 개관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동문의 노고가 있었다. 그 중에서 ‘총사령탑’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도우며 순조로운 개관을 위해 헌신한 이를 꼽으라면 단연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이 떠오른다. 남 자문위원장은 총동창회관 초대 관장을 맡아 초석을 다지겠다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남 총동창회관장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놀라운 정신력과 의지를 갖춘 70대 중반의 현역인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 초대관장은 지난 35년 동안 동창회 지킴이로서 헌신해왔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초대 관장을 맡으셨습니다. 비록 무보수의 자리이지만 동창회관 운영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할 책무를 짊어졌습니다. 동창회관 초대 관장 취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창회와 회관의 초석을 다지는 봉사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가슴 뿌듯하기도 하고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문 선�후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향후 총동창회관 운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동문들과 총동창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지혜로운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목적사업(연간 수익 목표액 1억2천만원)을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모교 장학사업이나 각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회관 임대사업(동문 위주) 계약이 80% 이상 성사되어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여가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당구장 등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동문 위주의 동창회관을 만들고 알뜰한 살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동창회관 운영상 제거해야 할 걸림돌 내지는 극복해야 할 대목을 지적해 본다면?

▲총동창회에 약간의 문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문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만8천여 동문이 우정과 사랑으로 격의 없는 토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동창회관 운영의 참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과 건물 구입, 그리고 리모델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간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관 기금은 장학재단 기금 16억 8천만원, 모교 발전기금 13억 8천만원, 총동창회 전 사무국 오피스텔 1억 8천만원, 마지막으로 박종찬 회장이 회관 설립 기금으로 모금한 21억원, 총 53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건물구입비용 약 30억원, 리모델링 비용 약 15억원, 각종 관리비 5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기획하여

출발, 3개월의 공정을 거쳐 드디어 역사적 개관을 2020년 6월 20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동문들의 모교와 동문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공사 약 30개 공정에 후배 동문 회사들만 참여, 최고의 전문기술을 발휘하였습니다. 참여 동문들은 합심하여 명품 동창회관을 만들겠다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들 후배들이 대단히 자랑스러웠고, 동창회의 밝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총동창회관 건립 개관이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 동문이 참여하여 이루어낸 쾌거임을 느꼈으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이사진에 참여해 온 세월이 35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총동창회의 ‘역사 사전’이라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동창회관 개관에 갖는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창회에 몸과 마음이 녹아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교의 역사와 전통, 동창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기록과 구전으로 전해 들으면서 관심 속에 빠져들다 보니, 불혹의 나이에 동창회 임원이 되어 어느덧 칠순의 나이를 훌쩍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역사 사전’이라는 과분한 칭호를 받아 송구스럽습니다. 그저 동창회의 ‘지킴이’라고 불리려면 딱 맞습니다.

동문들의 숙원 사업이 곧 저의 숙원 사업이니 어찌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또한 구입과 개관까지 36, 37대 박종찬 회장과 함께 자문위원장으로써 일목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오랜 시간 총동창회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또 가장 힘든 일을 회고하신다면?

▲오랜 시간 동창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보람이지요. 많은 선�후배를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수많은 우정을 쌓아 서로 도움을 나누는 계기를 만든 것은 큰 보람이지요. 또 선�후배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작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일은, 차기 회장 추대가 여의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기희생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어려운 시절 9회 정행권 회장, 11회 안강태 회장, 8회를 건너 뛰어 19회 이용흠 회장은 침체되어가는 동창회에 재정적으로 받침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용흠 회장이 회관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시 모교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으로 동문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상태라 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훗날을 기약했을 때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숙원 해결, 그 때가 도래했습니다. 박종찬 회장이 재정적 지원과 독심과 결단성으로 동창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 시켜 2020년 6월 20일 총동창회관 개관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들고 아팠던 것이 큰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가 동창회관을 발판으로 삼아 재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선 질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문 모두가 고액 기부에서부터 소액기부, 물품기부 등 마음을 모아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정성과 봉사, 헌신 등으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마음이 뭉쳐지면 우리 동문들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그랬듯이 무궁한 모교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혼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인생 선배로서 후배 동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살아보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동문 선�후배들이라도 화합하고 교류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남중고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주식회사 용마홀딩스



YONGMA HOLDINGS

법인등록번호 191411-0014927

**부동산
개발**

**분양
대행**

**인력
대행**

6회 오영은

주식회사 용마홀딩스 명예고문

20회 강부덕

주식회사 용마홀딩스 고문
용마동아포럼 회장
용마영도회 회장
영아일랜드 회장



기부자 리스트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기부 내역

(9회) 조동훈 3056만원	(11회) 오완수 일역원	(13회) 이경재 오천백만원
(15회) 김경일 사천만원	(16회) 송규정 오천만원	(17회) 최만식 오천만원
(18회) 김길제 오천만원	(19회) 이부성 오천만원	(19회) 이용흠 사천만원
(20회) 박용덕 삼천만원	(21회) 손석보 3064만원	(22회) 유재진 육천만원
(23회) 김영기 일역이천만원	(23회) 김중광 삼천백만원	(24회) 박홍규 오천만원
(25회) 김진철 육천만원	(25회) 박중찬 일역삼천만원	(25회) 서병수 삼천만원
(28회) 백영호 삼천백만원	(29회) 김대옥 육천만원	(31회) 박성철 삼천이백만원
(30회) 윤성덕 육천만원	(30회) 최우철 일역오백만원	(31회) 박중호 삼천만원
(31회) 홍성수 삼천백이십만원	(33회) 김법영 사천만원	(33회) 박명진 일역원
(35회) 장인화 삼천만원	(34회) 박진용 삼천만원	(37회) 어부남 오천만원
(38회) 권두성 일천만원	(38회) 정재영 삼천만원	(39회) 박근태 삼천만원
(40회) 우영환 삼천만원	40회 동기회 3636만원	(44회) 탁정환 삼천만원
(47회) 정신 삼천만원		

“기억하라, 그대의 기부를”

기부자 동판·명패 회관 벽에 부착



총동창회관 1층 로비 벽면에 부착된 고액기부자 동판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기억하라, 그대의 기부. 잊지 않으리라, 그대의 사랑. 새겨두리라, 그대의 이름.”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1층 로비 벽면에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과 얼굴, 기부금액을 새긴 동판이 부착돼 있다. 6월 5일 현재 모두 37개이다. 또한 5층 벽면에는 10만원 이상 기부한 일반기부자 1,201명의 이름을 새긴 명패가 기수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다. 이 모두가 모교와 동문을 사랑하는 용마들의 공덕이자 자량이다.

기부자들의 동판과 명패는 지난 5월 20일 기준으로 마감된 모금운동에 참여한 동문들에 한정돼 있다. 이날 이후 뒤늦게 접수된 기부자의 명단에 제작해 배치할 계획이다. 동판과 명패를 부착할 여지를 조금 남겨두었다. 기부 마감 시한을 넘어 계속해서 기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동판과 명패 앞에 섰을 때 본인 스스로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기부에 함께 참여한 동기생의 이름 앞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게 할 것 같다. 비록 기부에 참여 못

2020년도 기준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완수	1억원	
2	23	김영기	1억2,100만원	
3	25	박종찬	1억500만원	3,000만원
4	30	최우철	1억600만원	
5	33	박명진	1억1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2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경재	5,100만원	
2	16	송규정	5,200만원	
3	17	최만식	5,000만원	
4	18	김길제	5,200만원	
5	19	이부성	5,000만원	
6	22	유재진	6,100만원	200만원
7	24	박홍규	5,000만원	
8	25	김진철	6,200만원	
9	29	김대옥	6,550만원	
10	30	윤성덕	6,150만원	
11	37	허부남	5,250만원	
12	38	권두성	7,1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19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	3,056만원	
2	15	김경일	4,000만원	
3	19	이용흠	4,100만원	
4	20	박용덕	3,100만원	
5	21	손석보	3,064만원	
6	23	김중광	3,100만원	
7	25	서병수	3,000만원	
8	28	백영호	3,150만원	
9	29	박성철	3,350만원	
10	31	박중호	3,150만원	
11	31	홍성수	3,220만원	
12	33	김법영	4,150만원	
13	35	장인화	3,100만원	
14	36	박진용	3,100만원	
15	38	정재형	1,000만원	2,000만원
16	39	박근태	3,060만원	
17	40	우영환	3,150만원	200만원
18	44	탁정환	3,300만원	
19	47	정신	3,11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7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두호	1,000만원	
2	8	박동렬	1,000만원	
3	10	조양제	1,000만원	
4	12	남기용	1,000만원	
5	15	손부홍	1,500만원	
6	15	천신일		2,43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7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7	15	한해수	1,000만원	
8	17	이세복	1,000만원	
9	17	최성호	1,000만원	
10	19	황태원	1,000만원	
11	20	김형오	1,000만원	
12	20	허규판	1,000만원	
13	21	강창수	1,600만원	
14	21	전재호	1,000만원	
15	22	김학균	1,000만원	
16	22	박재상	2,000만원	
17	22	장성덕	1,000만원	
18	22	장성복	1,000만원	
19	22	허범도	1,000만원	
20	26	박상호	1,550만원	
21	27	박치호	1,000만원	
22	28	노영현	1,350만원	
23	30	김현태	1,200만원	
24	30	정경목	1,000만원	
25	33	이순환	1,000만원	
26	33	최웅남	800만원	300만원
27	34	이진호	350만원	8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35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8	김봉길	500만원	
2	17	김동수	500만원	
3	17	윤성욱	500만원	
4	17	조증언	500만원	
5	19	김봉호	600만원	
6	19	장홍의	600만원	
7	20	김태영	500만원	
8	20	박병철	500만원	
9	23	이상수	350만원	150만원
10	25	김익수	600만원	
11	25	송정규	550만원	
12	25	이명철	680만원	
13	26	김상현	500만원	
14	26	박재욱	500만원	
15	26	하원규	500만원	
16	27	문두찬	600만원	
17	28	구영소	500만원	
18	28	이원철	900만원	
19	28	최강호	500만원	
20	29	이석조	500만원	100만원
21	30	김해곤	200만원	500만원
22	30	윤인태	580만원	
23	30	이명건	30만원	500만원
24	30	이학수	700만원	
25	31	남기태	700만원	
26	31	류명석	630만원	
27	31	오민일	600만원	
28	31	이병태	600만원	
29	31	정철수	500만원	
30	32	이중휘	630만원	
31	34	박철웅		500만원
32	34	이재완	550만원	
33	39	백기현	10만원	800만원
34	44	안병규	100만원	500만원
35	64	표종빈	500만원	

동창회보광고

동창회보 광고를 받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광고가 동창회의 활력이 됩니다.

광고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 전면광고200만원/반면광고100만원
안쪽 전면광고 150만원/반면광고75만원
4단 하단광고는 40만원

광고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051-253-7788
또는 동창회보 편집주간 010-7257-0020

경남중고 총동창회

한 동문일지라도 동기회 명예와 긍지를 살린 동기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법하다.

특히 총동창회의 미래를 짊어질 후배 기수 동문들에게는 이번 기부 행위 자체가 기부금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커다란 무형의 자산으로, 자긍심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기부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다. 기부 참여자는 훗날 “그때 나도 벽돌 하나 놓았다”고 당당히 말할 자격증을 거머쥔 셈이다.

<일반기부자 명단 리스트 14~17면 게재>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5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1회	김근준	200		12회	김종수	50		17회	김상천	100		19회	김정국	10		22회	김종귀	50		25회	곽동원	100	
3회	김영삼		10	12회	김종원	10		17회	김성락	10		19회	김중기	10		22회	노세현	260		25회	구도근	10	
3회	김희철	30		12회	김종일	10		17회	김성오	50		19회	김진국	50		22회	민훈기	10		25회	구자훈	50	
3회	원용신	10		12회	김진갑	20		17회	김승현	100		19회	김철호	100		22회	박상갑	50		25회	권수갑	20	
4회	김주호	20		12회	김철기	100		17회	김용구	100		19회	남기진	100		22회	박언표	100		25회	권태용	10	
4회	박석만	20		12회	김춘광	10		17회	김용남	10		19회	남진현	200		22회	박재인	50		25회	권태진	30	
4회	박홍기	30		12회	김효구	10		17회	김조일	10		19회	박갑진	130		22회	손연모	100		25회	김건우	100	
4회	양종학	300		12회	박영운	10		17회	김준연	110		19회	박동화	300		22회	이동열	100		25회	김경환		15
4회	장수호	100		12회	박용운	10		17회	김준위	100		19회	박상식	80		22회	이웅규	30		25회	김광돈	10	
4회	정순모	200		12회	박정운	10		17회	김지창	30		19회	박수남		30	22회	장무성	100		25회	김광배		10
5회	상기중	30		12회	박종정	100		17회	김창운	300		19회	박종화	100		22회	장영근	100		25회	김구화	30	
5회	임성업	30		12회	박창수	30		17회	김태호	20		19회	배무삼	30		22회	정해진	50		25회	김규진	50	
5회	정인조	100		12회	안상직	30		17회	김효남	10		19회	백영철	10		22회	조윤재	200		25회	김길수	50	
5회	진도영	30		12회	안영규	20		17회	문석웅	50		19회	석무관	100		22회	채천석		10	25회	김대현	100	
6회	김윤용	10		12회	안영배	10		17회	박가식	100		19회	성낙출	150		22회	최학봉	100		25회	김덕우	30	
6회	나오연	100		12회	엄태섭	30		17회	박신도	200		19회	성환진	20		23회	김기열	10		25회	김동식	10	
6회	노재형	10		12회	오세정	20		17회	박영두	20		19회	손말현	10		23회	김동옥	250		25회	김동진	100	
6회	오영은	200		12회	옥계한	100		17회	박영일	10		19회	신윤철	40		23회	김동욱	50		25회	김동철	20	
6회	이길상	30		12회	왕한균	100		17회	박인사	100		19회	심영섭	20		23회	김상영	60		25회	김령	20	
6회	이희문	80		12회	윤성희	12		17회	박재구	20		19회	안정모	20		23회	김용기	20		25회	김문국	20	
6회	임경택	10		12회	이수영	10		17회	박종구	100		19회	오일환	100		23회	김용선	30		25회	김상겸		50
6회	장재수	20		12회	이승훈	10		17회	박창홍	100		19회	이만호		10	23회	김태용	120		25회	김상수	100	
6회	정건용	10		12회	이용언	50		17회	백철균	10		19회	이명환	100		23회	김현	30		25회	김상필	50	
6회	정상철	30		12회	이원우	100		17회	서재홍	20		19회	이성달	200		23회	노영배	200		25회	김수석	10	
6회	정세동	20		12회	임정명	30		17회	서정승	200		19회	이양환	20		23회	박수갑	100		25회	김연석	50	
6회	최상해	10		12회	정대식	10		17회	손성근	200		19회	이용만	10		23회	박재호	10		25회	김영국		10
6회	허택	30		12회	정영철	200		17회	송유근	30		19회	이장희	150		23회	방경부	10		25회	김영명	30	
7회	김진홍	100		12회	최병준	10		17회	송인문	100		19회	이종명	20		23회	배종순	20		25회	김영수		10
7회	김호용	10		12회	최병훈	10		17회	신정아	10		19회	이창윤	100		23회	서영수	100		25회	김영택		10
7회	배중현		50	12회	최신일	20		17회	신종	30		19회	최덕열	10		23회	서한현	10	10	25회	김옥권	20	
7회	이우호	50		12회	탁해정	10		17회	안정의	30		19회	최연근	10		23회	손군식	100		25회	김옥철	50	
8회	공상태	100		12회	하일민	30		17회	여성렬	10		19회	최화익	10		23회	송충승	60		25회	김용경	10	
8회	구본섭	100		12회	한춘배	10		17회	오태식	100		19회	함진복	50		23회	신상희	120		25회	김용수	10	
8회	안종렬	100		13회	구덕건		10	17회	우기남	50		19회	황태경	20		23회	안병울	20		25회	김우형	30	
8회	윤상현	10		13회	김성훈		20	17회	윤수성	30		19회	황호균	100		23회	안병화	20		25회	김원욱		30
8회	이윤조	100		13회	김승언		20	17회	이건우	100		20회	강부덕		10	23회	안성민	100		25회	김유환	10	
8회	장혁표	100		13회	김정성	30		17회	이성흥	30		20회	강석근	300		23회	옥치범	300		25회	김윤수		10
9회	김영국	20		13회	김철규		10	17회	이수창	100		20회	강영환	10		23회	원인건	230		25회	김은주		10
9회	김종호	50		13회	배대결	20		17회	이우기	10		20회	김세준	100		23회	육병천	20		25회	김인	10	
9회	김태영	10		13회	신하근		100	17회	이일영	10		20회	김원률	10		23회	윤순현	210		25회	김인섭	30	
9회	박당희	20		13회	안성문		100	17회	이정보	10		20회	김일석	100		23회	이덕남	10		25회	김장형	30	
9회	성백규	10		13회	윤기갑	20		17회	이종길	10		20회	김조동		100	23회	이동성	100		25회	김정학	80	
9회	신석현	20		13회	이정명	30		17회	이종혁	100		20회	김종민		300	23회	이문희	200		25회	김종국	20	
9회	이대규	100		13회	정철기	30		17회	이형우	100		20회	김태선	300		23회	이병용	10		25회	김종만	30	
9회	이영구	10		13회	허일인		20	17회	장승우	200		20회	박형찬	100		23회	이병찬	350		25회	김종업		10
9회	정행권	100		13회	황일인	100		17회	장호남	10		20회	배서호	200		23회	이상렬	30		25회	김종윤	100	
9회	한동대	50		14회	김용호		10	17회	전경명	100		20회	백문찬	100		23회	이수백	220		25회	김종태		50
9회	황영선	20		14회	김화옥	20		17회	정량부	100		20회	신원기	200		23회	이충호	130		25회	김종택		20
10회	김상국	20		14회	류충일	100		17회	정태일	100		20회	이실근	100		23회	전상대	30		25회	김종현	180	
10회	김선동	20		14회	박병선	100		17회	정해표	10		20회	장상배	300		23회	전영조	220		25회	김진우	100	
10회	김성규	50		14회	윤영현	100		17회	제양성	50		20회	장춘식	10		23회	전원익	30		25회	김창욱	100	
10회	박재경	10		14회	이길미	100		17회	조용운	30		20회	정규식	300		23회	정상건	230		25회	김창호	10	
10회	박종문	20		14회	장한교		20	17회	차성철		10	20회	정용환	300		23회	정용호	100		25회	김청수	50	
10회	신대수	20		15회	박영무		10	17회	천용광	10		20회	차상근	200		23회	조현표	50		25회	김충재		20
10회	오강욱	200		15회	서정욱	10		17회	추봉실	110		20회	채경석	200		23회	채행운	130		25회	김태선	30	
10회	이봉원	10		15회	유지영		10	17회	하영수	300		20회	최장하	300		23회	최인식	70		25회	김형근	20	
10회	이언희	20		15회	이상모	30	100	17회	허종언	30		20회	한기완	100		23회	하복진	20		25회	노태선		50
10회	임호웅	20		15회	임영길	100		17회	현태일	100		20회	허남균	300		23회	허영근	50		25회	노태호	100	
10회	전영대	20		15회	하영수		10	17회	황중부	10		21회	김기현	50		24회	곽두희	100		25회	도재문	30	
10회	정승석	50		15회	하정부	10		18회	김경걸		50	21회	김성환	300		24회	구자웅		100	25회	문재인		10
10회	허영오	200		15회	홍익찬		50	18회	김동희	100		21회	박재선		10	24회	김인구	20		25회	문창진		20
11회	공상기	100		16회	강종국	10		18회	김재창	50		21회	양경현		20	24회	노상우	150		25회	박경립		10
11회	김재곤	30		16회	강진중	10		18회	김준길	100		21회	윤승근	100		24회	박극제	100		25회	박광용	20	
11회	박병호		20	16회	김상효	100		18회	류종우	30		21회	윤진원	10		24회	손세영	200		25회	박동건	100	
11회	백연균	30		16회	김선명		10	18회	박석도	50		21회	전우성	200		24회	이상룡	10		25회	박맹우	30	
11회	심재룡	120		16회	김재승		10	18회	박준성	20		21회	정갑식		10	24회	이전재		10	25회	박문갑	20	
11회	안강태	100		16회	박춘호	10		18회	서재봉	50		21회	정상인		20	24회	임민호	50		25회	박문준		10
12회	강수현	200		16회	여성국	10		18회	장기영	20		21회	최점수	50		24회	정영석	100		25회	박병철	30	
12회	강창수	30		16회	최천수	50		18회	황광건	200	100	22회	강봉기	100		24회	정윤상	50		25회	박상건		10
12회	구봉근	30		16회	홍용찬		50	19회	강영범	10		22회	구자룡	100		24회	최동우		10	25회	박세철	380	
12회	권시길	20		17회	강주수	10	</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5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25회	박창준	10		25회	임무홍	100		26회	배용호	50		27회	이판세		10	29회	김석운	40		30회	김유기		30
25회	박창훈	10		25회	임상택	50		26회	성재업	50		27회	이헌	20		29회	김성문	100		30회	김인섭		10
25회	박현구	30		25회	임용택		100	26회	성재일	200		27회	이홍걸	10	20	29회	김영기	10		30회	김재수	30	
25회	박호철	30		25회	임창운	100		26회	손영수	20		27회	장세영		10	29회	김영훈		100	30회	김정태	50	
25회	박홍기	30		25회	장대락	50		26회	송동준	10		27회	전태원		10	29회	김용채	100		30회	김종진	30	
25회	배기동	30		25회	장선근	30		26회	양준영	50		27회	정두식		10	29회	김인암	100		30회	김종휘	100	
25회	배대관	30		25회	장세훈	150		26회	엄윤섭	100		27회	조용수	200		29회	김정암	100		30회	김창근	30	10
25회	배동명	50		25회	장흥석		10	26회	왕정일	100		27회	조우영		10	29회	김종명	130	100	30회	김한실		10
25회	배종오		20	25회	전섭태	10		26회	이경호	100		27회	조형선		10	29회	김철오		100	30회	김홍수		10
25회	백광목		70	25회	전상태		10	26회	이규생	70		27회	차승일		10	29회	김태완		50	30회	명효준	10	
25회	서민상	10		25회	전영주	10		26회	이상원	300		27회	최경룡		10	29회	김호성		10	30회	박동욱	50	
25회	서보민	50		25회	전영훈	10		26회	이순철	50		27회	최두진		10	29회	민동식		10	30회	박모철		10
25회	서인진	30		25회	전원배	50		26회	이영덕	100		27회	최용수		10	29회	민종식		10	30회	박성태		50
25회	서정욱		10	25회	정동철	30		26회	이영학		200	27회	최인성	30		29회	박기찬		50	30회	박세우		10
25회	성대기	30		25회	정무동	30		26회	정거돈	100		27회	최휴진	100		29회	박동일	50		30회	박웅석		10
25회	성백희	20		25회	정성호		10	26회	정국근	100		27회	한수길	200		29회	박동혁	200		30회	박원호	100	
25회	손국영	50		25회	정수성	30		26회	정익교	100		27회	한창헌	50		29회	박병태		10	30회	박일기		20
25회	손기찬	250		25회	정재봉	50		26회	조만석	75		27회	황호경		10	29회	박상길	100		30회	박재백	30	
25회	손원	100		25회	정철수	100		26회	조일제	50		28회	김관세	100		29회	박인평	50		30회	박정태	30	20
25회	송무룡	30		25회	정호성	50		26회	최성수		10	28회	김기태	300		29회	배성한		10	30회	박철우	100	100
25회	송영근	200		25회	제영성	150		26회	최수일	100		28회	김만중	300		29회	배진영	100		30회	배승한	30	
25회	신성기		300	25회	조경일	30		26회	최의수	20		28회	김명영	200		29회	배현호		50	30회	백기언		10
25회	신성우	100		25회	조대우	100		26회	하주근	50		28회	김명준	100		29회	사공운근	40		30회	서강태	160	
25회	신성찬	100		25회	조동진	10		26회	한원우	100		28회	김부윤	100	100	29회	서석철	20		30회	서덕영		20
25회	신수영	20		25회	조병욱	30		26회	홍순하		10	28회	김상정	100		29회	서영학	10		30회	서민석	160	
25회	신현대	10		25회	조양일	30		27회	강봉호		10	28회	김용석	110		29회	손영보		10	30회	서복현	100	
25회	안대상	10		25회	조익	50		27회	강일용		10	28회	김정유	200		29회	손홍근		30	30회	서재원	30	
25회	안영복	10		25회	조인래	20		27회	고창우		10	28회	김종섭	100		29회	송희태	50		30회	서하수	300	
25회	안태길	10		25회	조판제		10	27회	곽태홍		10	28회	김종성	250		29회	안창홍		100	30회	석대식	30	
25회	안희석	50		25회	좌상봉	100		27회	김경국		10	28회	김준배	100		29회	양승오	100	20	30회	송영환	100	
25회	양계현	10		25회	주재길	50		27회	김경중		10	28회	김준연	200		29회	오세용	100		30회	송치근		20
25회	여성조	10		25회	차인환		20	27회	김만용		10	28회	김형진	250		29회	윤종경	150		30회	송한식	30	10
25회	예종복	30		25회	천석수	20		27회	김민수	10		28회	김홍중	100		29회	윤형근	50		30회	신경호		10
25회	예해덕	100		25회	최경호	10		27회	김병옥	30		28회	노태욱	100		29회	이경호	100	10	30회	신구균		30
25회	오양득	150		25회	최광수	50		27회	김병추		20	28회	박석환	100		29회	이남중		30	30회	신도현		10
25회	오태관	30		25회	최동하	100		27회	김병호	100		28회	박영규	200		29회	이문열	200		30회	신범주	30	
25회	옥동훈	30		25회	최차환	50		27회	김상문		50	28회	박재훈	20		29회	이상정		10	30회	신영주	30	10
25회	옥석관		20	25회	최천성		10	27회	김안석		10	28회	박종기	150		29회	이선유		50	30회	신윤원	30	
25회	우경욱	50		25회	최태동	20		27회	김용태	250		28회	박진화	20		29회	이성열	30		30회	안종화	100	
25회	우봉구		30	25회	최한석	20		27회	김우진		10	28회	배효진	20		29회	이승호	200		30회	오경태	10	10
25회	우상룡	50		25회	최현림	10		27회	김원대		50	28회	서영대	150		29회	이영수		10	30회	오섬훈		20
25회	우진태	100		25회	탁준길	30		27회	김종하		10	28회	송명석	20		29회	이종포	50		30회	왕순모	30	
25회	유용기		30	25회	태명산		10	27회	김지원		10	28회	안재홍		100	29회	이충원		50	30회	유영록	10	
25회	윤길유		30	25회	하대중	100		27회	김진회	100		28회	안재홍	110	30	29회	이헌률	50		30회	유재일	10	10
25회	윤봉한	10		25회	하동문	10		27회	김태우	450		28회	엄보용	100		29회	이광열	100		30회	윤기송	50	
25회	윤순기	30		25회	하만진	30		27회	김현수		10	28회	엄재홍	200		29회	임무택		20	30회	윤종순	30	
25회	윤영순	50		25회	하성룡	100		27회	김호균		10	28회	옥상근	300		29회	임상훈	50		30회	이광봉	30	10
25회	윤종렬	50		25회	한봉재	30		27회	김홍근		10	28회	옥준원	100		29회	장만	100		30회	이광희	20	20
25회	윤진호	30		25회	한석경	200		27회	김훈탁		10	28회	윤경섭	200		29회	장현섭		10	30회	이기환	100	
25회	윤태석	10		25회	한준석	100		27회	류재길	35		28회	이경포	200		29회	전장화	100		30회	이민영		10
25회	윤태환		10	25회	허만탁		20	27회	문기영		10	28회	이만수	300		29회	정길	100		30회	이상정		30
25회	윤희승	30		25회	허실권	20		27회	문성기		20	28회	이만재	100		29회	정란		10	30회	이성호		10
25회	이근만	30		25회	허영형	50		27회	박병주		30	28회	이민우	20		29회	정성훈	100		30회	이영준	30	
25회	이기종	20		25회	허우성	30		27회	박성대		10	28회	이병호	10		29회	조승제	100	10	30회	이용우		10
25회	이대우	100		25회	허철구		10	27회	박영빈		10	28회	이승하	100		29회	차의수		10	30회	이원용		10
25회	이동석	30		25회	허택	100		27회	박완기		10	28회	이원용	100		29회	초경열		10	30회	이인길	50	
25회	이동익	50		25회	황곤태	20		27회	박이달		10	28회	이종대		50	29회	최기훈	10		30회	이한수	30	
25회	이문지		10	25회	황철	20		27회	박춘규		10	28회	이철행	20		29회	최문성	30		30회	이헌수		10
25회	이민희	20		25회	황호선	100		27회	반정열		10	28회	이하백	10		29회	최영식	20		30회	이환기	30	
25회	이상범	50		25회	황호연		10	27회	백민호	10		28회	임상규	30		29회	한만수		10	30회	인준승	20	20
25회	이상식	10		26회	강영녕	200		27회	변재국		10	28회	임재덕	200		29회	황유명	80		30회	임영수	50	
25회	이상훈	50		26회	강의규	100		27회	서기룡	10		28회	정백수	26		30회	강석철	30		30회	임영호	30	
25회	이석희	30		26회	권종대	100		27회	신용도		10	28회	정성목	200		30회	고석주		30	30회	장영조	30	
25회	이성웅	20		26회	김두천	100		27회	신한원		10	28회	정영주	50		30회	구영석	10		30회	정규홍		30
25회	이성호		10	26회	김민철	30		27회	양태중		10	28회	정해영	100	10	30회	권영인	30		30회	정성원		30
25회	이수영	200		26회	김우갑	50		27회	유무근		10	28회	최연욱	50		30회	권용택	50	100	30회	정순길		30
25회	이순철	20		26회	김종우	200		27회	유영호	115		28회	하재근		50	30회	김경수	30		30회	정승진	30	
25회	이승욱	20		26회	김태권	10		27회	윤문태	10		28회	한명재	200		30회	김기섭	100		30회	정영호	100	100
25회	이신화	10		26회	김태년		10	27회	윤석건	10		28회	한수범	50		30회	김기수	10	10	30회	정용하		20
25회	이우석	30		26회	김태용	10		27회	윤정환		10	28회	허남식	30		30회	김기업	50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5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30회	최진권	10		31회	이정근	10		33회	한상봉	100		37회	김기덕	10		39회	김천술	10		40회	장명재	10	
30회	추태명	10		31회	이채웅	24		33회	황규태	100		37회	김기동	20		39회	노성수		10	40회	장정욱	30	
30회	하규양	100		31회	장건호	22		34회	곽수균		10	37회	김길영	20		39회	박용한	10		40회	정경두	10	
30회	하전근	20		31회	장성수	10		34회	구동회	10		37회	김동욱	10		39회	박인석	200		40회	지승렬	100	
30회	허선행		10	31회	장성호	22		34회	김두섭	50		37회	김원범	10		39회	박종국	10		40회	최석우	100	
30회	허영재	30		31회	장재훈	22		34회	김상진	10		37회	김인평	10		39회	박준근	10		40회	최신일	50	
30회	홍인기		10	31회	장평우	310		34회	김중근	30		37회	김중휘		50	39회	안승진	10		40회	최용석	100	
30회	황철민	100	10	31회	전증욱	10		34회	김현용	10		37회	김형권	10		39회	양정교	10		40회	최치언	30	
31회	고영호	10		31회	정문	120		34회	문형철	10		37회	김형기	30		39회	여동섭	10		40회	한수열	110	
31회	공광욱	50		31회	정용정	50		34회	백운창	10		37회	문병호	10		39회	윤원욱	50		40회	황성현	10	
31회	공종렬	12		31회	정인화	12		34회	변성수	10		37회	문진형		10	39회	이영수	10		41회	강병오	10	
31회	권해철	12		31회	정정남	132		34회	손병길	30		37회	박용진	50		39회	이원영		300	41회	강석희	10	
31회	김경영	12		31회	조성근	42		34회	오상민	30		37회	박철우	10		39회	이종운		100	41회	강훈	10	
31회	김광수	10		31회	조영기	34		34회	옥재명	20		37회	서동욱	30		39회	이태윤		10	41회	김기영	10	
31회	김기정	100		31회	조현우	22		34회	이상운	10		37회	송성철	10		39회	정순환	10		41회	김범성	20	
31회	김대식	20		31회	천장호	12		34회	이성엽	100		37회	송형환	10		39회	정우영	10		41회	김봉준	30	
31회	김만	100		31회	최경우	32		34회	이용희		10	37회	신수룡	10		39회	정진훈	10		41회	김신욱	10	
31회	김명우	10		31회	최봉근	12		34회	이정철		10	37회	신우진	10		39회	하순호	50		41회	김영철	50	
31회	김병기	10		31회	최상규	22		34회	전재병	10		37회	양귀수	10		39회	한성호	10		41회	김인수	100	
31회	김부영	10		31회	최재선	10		34회	조선	30		37회	양순남	10		39회	허종기		100	41회	김정태	100	
31회	김상수	10		31회	최재호	12		34회	조시형	30		37회	윤태환	10		40회	고영민	20		41회	김찬원	20	
31회	김성수	300		31회	최주홍		10	34회	채선경	10		37회	이수환	10		40회	권병서	200		41회	김형률	60	
31회	김시현	10		31회	최진섭	200		34회	최대한	50		37회	이용한	100		40회	김경환	100		41회	남관희	30	
31회	김영수	10		31회	최해영	12		34회	최태원	10		37회	이호진	10		40회	김근영	30		41회	류지섭	30	
31회	김영철	22		31회	최효식	70		34회	현승복	10		37회	장동한	10		40회	김대영	20		41회	박정기	20	
31회	김원태	10		31회	하명수	30		34회	황인철	10		37회	장원익	100		40회	김동근	10		41회	백선민	10	
31회	김의석	10		31회	하학열	120		35회	김길호		20	37회	정성운	10		40회	김병주	200		41회	백정훈	100	
31회	김재술	60		31회	한광규	12		35회	김동인	10		37회	정순용	10		40회	김봉철	10		41회	백창봉		30
31회	김정덕	12		31회	허일헌	12		35회	김병수	10		37회	정재호	10		40회	김성진	30		41회	변영호	10	
31회	김정택	12		31회	황성철		10	35회	김세정		10	37회	조성각	10		40회	김승환	100		41회	신동진	20	
31회	김종규		20	32회	김대식	100		35회	박동렬	100		37회	조영규	30		40회	김영진	60		41회	안광근	10	
31회	김종호	120		32회	김상권	150		35회	박창제	10		37회	조현주	10		40회	김용철	10		41회	안병근		10
31회	김진국	12		32회	김상범	10		35회	서석	20		37회	조현철	10		40회	김종철	200		41회	유수호	10	
31회	김태근	100		32회	김종일		20	35회	손기철	10		37회	채일권	10		40회	김진	30		41회	육욱성	10	
31회	김판덕	12		32회	김종판		50	35회	신광우		30	37회	천웅찬	10		40회	김진우	10		41회	윤성보	30	
31회	김현주	12		32회	김창범	20		35회	안병남	50		37회	최규철	10		40회	김창민	10		41회	윤성한	10	10
31회	김현울	12		32회	문우식		20	35회	안종일	30		37회	최재형	10		40회	김춘강	30		41회	이경석	50	
31회	김형수	30		32회	민길식		10	35회	이남기	10	20	37회	탁낙준	10		40회	김태한	10		41회	이경호	40	
31회	김효연		10	32회	박성철	100		35회	이복근	20		37회	하주용	10		40회	문태영	10		41회	이양걸	300	
31회	남경수	10		32회	박영욱	30		35회	이성환		30	37회	홍병일	30		40회	박광용	10		41회	이정삼	20	
31회	남철우	60		32회	박운대	10		35회	이효성	10		37회	홍원석	10		40회	박근성	50		41회	이종민	20	
31회	마병진	10		32회	배종찬		20	35회	임성배		30	37회	황태윤	20		40회	박기엽	10		41회	이주하	30	
31회	문성일	10		32회	이득우	100		35회	장우진		10	38회	강금성		10	40회	박무성	10		41회	이준석	10	
31회	박경수	400		32회	이병준	100		35회	정윤성		100	38회	곽동열	10	10	40회	박훈재	100		41회	임병호	10	
31회	박석기	100		32회	이병훈		40	35회	황용순	10		38회	김경근	100	100	40회	배병훈	100		41회	장윤호	10	
31회	박석두	200		32회	임채균	30		36회	권태휘	10		38회	김경태		50	40회	배영진	30		41회	장익조	10	
31회	박세환		10	32회	장기호	30		36회	김관용		100	38회	김근홍		20	40회	배진수	20		41회	전삼록	100	
31회	박인정	12		32회	정용수		20	36회	김영훈	200		38회	김문철	10		40회	변태경	50		41회	정필상	10	
31회	박종건	10		32회	정용운	50		36회	김정현	300		38회	김원철	10		40회	서정민	20		41회	조원호	10	
31회	박종규	100		32회	최춘호	100		36회	김종백	10		38회	김태호		10	40회	서주현	50		41회	천성원	10	
31회	박해성	10		32회	허규	10		36회	김종오	10		38회	김현민	100		40회	성봉진	20		41회	최영준	100	
31회	박희암	22		32회	허재창	30		36회	김창일		10	38회	류인식	10		40회	성태진	200		41회	최호열	10	
31회	배정우	12		33회	계동원	30		36회	김철원	200		38회	박이현	50		40회	손균호	50		41회	추교용	30	
31회	서규영	10		33회	김기산	80	10	36회	김현철	100		38회	박재영		10	40회	신영석	10		41회	허치회	50	
31회	서동균	22		33회	김윤성	100		36회	류형우	20		38회	박정민	10		40회	안성호	10		41회	홍동훈	30	
31회	서수교	120		33회	김재도	120		36회	박철중	20		38회	박준표	20		40회	안용태	100		41회	홍석우	50	
31회	서태교	130		33회	김재선	100		36회	손광성	10		38회	백승온	10		40회	염점철	100		41회	황정후		10
31회	성오용	22		33회	김종만	50		36회	신승렬	30		38회	손공		10	40회	예진원	100		42회	강경국	30	
31회	손영태	100		33회	김종인	12		36회	이동희	40		38회	신동훈	30		40회	옥진형	10		42회	강승완	10	
31회	손정수	24		33회	김태훈	50		36회	이성호	10		38회	오회진	110		40회	윤경학	50		42회	강인호	10	
31회	손진기	22		33회	남경태	100		36회	이우수		10	38회	윤경만		10	40회	이강욱	10		42회	곽창우	30	
31회	송은정	12		33회	류장근	150		36회	이창		100	38회	이동희		10	40회	이공환	10		42회	김광철	10	
31회	신상하	22		33회	류홍영	30		36회	이학수	10		38회	이수명	30		40회	이광	200		42회	김동원	10	
31회	신수열	22		33회	박성병	10		36회	임서룡	10		38회	이수명	30		40회	이남기	100		42회	김병재	10	
31회	심규열	12		33회	박태원	10		36회	임창섭	20		38회	이인철		10	40회	이남주	30		42회	김성민	50	
31회	심재홍	12		33회	백수현	50		36회	정갑영	10		38회	이종명	300		40회	이남훈	10		42회	김세용	10	
31회	심중식	10		33회	서재영	100		36회	정병기		10	38회	이태훈	10		40회	이동현	30		42회	김수용	10	
31회	안기수	34		33회	송성림		10	36회	정윤희	100		38회	이한국		20	40회	이병완	20		42회	김순곤	100	
31회	안우현	60		33회	송중현	100		36회	정인석	30		38회	조석태	100		40회	이상백	30		42회	김영태	30	
31회	안중수		10	33회	신용준	10		36회	조경호	10		38회	조용철	20	100	40회	이승배	10		42회	김원주	10	
31회</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5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42회	박일수	10		44회	석상봉		10	46회	김희택	10		48회	서민중	10		51회	구대서		10
42회	손삼식	10		44회	우도균	100		46회	나병관	10		48회	윤석권	10		51회	구민석	10	
42회	신봉준	100		44회	윤상훈		10	46회	문정기	10		48회	이충훈	10		51회	김동주	10	
42회	안정일	10		44회	이부교		10	46회	백경택	10		48회	이형철	10		51회	김영권	10	
42회	여인환	10		44회	이승철	10		46회	서승진		10	48회	차원일	10		51회	김영재	10	
42회	오기석	10		44회	임정훈		10	46회	서용택	10		48회	한병주	10		51회	박보순	10	
42회	유경상	30		44회	전광렬	100		46회	신정일	30		49회	김덕호	10		51회	송상민	10	
42회	윤영기		10	44회	정종윤		10	46회	안명기	10		49회	김태훈	10		51회	신석진	10	
42회	윤영덕		20	44회	제정완		10	46회	오영훈	10		49회	박시원	10		51회	신현식	60	
42회	윤종득	10		44회	조상화		10	46회	윤경한	10		49회	서인석	10		51회	오성진	100	
42회	이승훈	10		44회	조청현		10	46회	윤성근	10		49회	신종국	10		51회	우성우		10
42회	정용중	100		44회	최현덕		10	46회	이동수	10		49회	예병삼	10		51회	유상일		10
42회	정홍준	10		44회	한수성		10	46회	이성민	100		49회	이동훈	10		51회	이건영	10	
42회	조명준	200		44회	황재훈		10	46회	이재광	10		49회	이충현	10		51회	정유석	100	
42회	진진우	10		45회	강동호	20		46회	이태환	10		49회	임기환	10		51회	최우영	10	
43회	김대영		10	45회	구자삼	20		46회	장윤성	10		49회	장형철		10	52회	김민철	100	
43회	김동현		10	45회	권우일	80		46회	정호영	10		49회	정일권	170		52회	김상근		10
43회	김성수	30		45회	김상수		100	46회	최원석	50		49회	제민진	10		52회	김성화		10
43회	김영선	10		45회	김중현	10		46회	하성용	10		49회	최유탄	10		52회	김지운	100	
43회	김영휘	265		45회	김진수		200	46회	홍이준	30		49회	최재원		10	52회	김현진	10	
43회	김종술		10	45회	박종호		20	47회	감기환		20	49회	최진영	10		52회	박상현		10
43회	김종식		10	45회	손창오	10		47회	강백중	10		49회	하성우	10		52회	정길수	30	
43회	김진수	42		45회	장성익	50		47회	고달우	20		49회	홍민호	10		52회	정상중	10	
43회	박건곤		10	45회	조청래	20		47회	김동휘		10	50회	구민수	10		52회	정현철		10
43회	박승삼		10	45회	조태성	20		47회	김상훈		10	50회	김동현	10		52회	최형주	10	
43회	박형규	30	100	45회	진상영		20	47회	김세준	10		50회	김석훈	10		52회	한중현		10
43회	배진국		10	45회	최상배		100	47회	김용주		10	50회	김영환	100		52회	허근영		100
43회	송대성	10		45회	최재근	30		47회	김응태	30		50회	김정현	10		53회	김광호		10
43회	윤상원		10	45회	하인수	10		47회	배준수	200		50회	박복열		10	53회	김권우	10	
43회	이상현	10		46회	강진희		10	47회	성상용	10		50회	박종현	250		53회	김상욱	50	
43회	이용상	10		46회	권성기	10		47회	송수성		10	50회	백광선	70		53회	문희규	10	
43회	이정열		10	46회	권진근	10		47회	송창은		10	50회	백송현	10		53회	박성영	10	
43회	이진배		10	46회	김규태	10		47회	이승택	50		50회	서석진	100		53회	백홍상		10
43회	정호범		10	46회	김대기	10		47회	전유수	10		50회	안기범	10		53회	우재준	10	
43회	최성필	40		46회	김동욱	10		47회	정기주		10	50회	이상구	10		53회	이원준	10	
43회	최한림		10	46회	김문희	10		47회	정민호	20		50회	이종환	10		53회	이진수		10
44회	김성준	10		46회	김백권	50		47회	정성훈		10	50회	정운호	10		53회	한동인		10
44회	김재정		20	46회	김부규	10		48회	김주현		10	50회	조기준	10		53회	황명수		10
44회	김황		10	46회	김태영	50		48회	김춘호	20		50회	최용호	10		54회	강치범	100	
44회	문형준		10	46회	김태준	10		48회	김태균		20	50회	황국현	20		54회	고강인	10	

단체 발전기금	17회 마산동기회(100만원) 27회 동기회(2,740만원) 41회 산악회(30만원) 사하지역동창회(300만원)	21회 동기회(4,71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00만원) 44회 동기회(500만원) 교통공사용마회(100만원)	24회 동기회(4,5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450만원) 47회 동기회(300만원) 뉴질랜드동창회(50만원)	25회 동기회(6,470만원) 34회 동기회(1,000만원) 김해지역동창회(300만원) 샌프란시스코지역(50만원)	26회 구형회(100만원) 37회 동기회(200만원) 용마회(190만원) 시카고지역(107만원)
회관기금	동기회	13회 동기회(200만원) 43회 동기회(1,000만원)	24회 동기회(1,000만원) 50회 동기회(100만원)	32회 동기회(1,000만원) 52회 동기회(100만원)	33회 동기회(350만원) 53회 동기회(100만원)
	지역	거제지역동창회(100만원)	김해지역동창회(150만원)	창원지역동창회(100만원)	통영지역동창회(100만원)
	해외지역	호치민지역동창회(80만원)			
	직능/동호	경미회(200만원) 생우회(100만원) 33회 산우회(100만원)	경야회(200만원) 용건회(132만원)	경친회(100만원) 용마코스(100만원)	구형워커스(100만원) 현대자동차동문회(100만원) 기독교동문회(50만원) 25회 쌍백화-부산(200만원)

기부금 영수증 필요없는 분은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용마의 기부”는 지속 됩니다”

모교와 동문사랑 영원히... 수시기부시스템 가동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운동은 이제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20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교와 동문을 위한 기부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기명이든 익명이든 기부는 가능하다. ‘용마의 기부’는 끝난 게 아니다. 총동창회 사무국의 기부접수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수시기부시스템’이란 제도적 장치가 가동 중이

다.(동창회보 제425호 참조)
2018년 3월부터 2년 남짓 추진된 이번 모금운동은 동창회관 기금이란 목적성을 띠고 고액기부와 일반기부 투트랙으로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문들이 기부에 참여했다. 경남중고 동문사회의 새로운 기부문화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기부하고 싶은 동문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취지에서 수시기부시스템이 탄생

되었다.
소액기부를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고 단발성 고액기부도 가능하다. 모두가 축적되며 공개된다. 개인별 기부금을 모두 합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기준 해당 기부자에 수준별 명칭을 부여한다. 모두 9종이다. 10억원 이상 기부자는 ‘더블 다이아몬드’, 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 3억원 이상 ‘루비’, 2억원 이상 ‘사파이어’, 1억원 이상 ‘에메랄드’, 5천만원 이상 ‘플래티늄’, 3천만원 이상 ‘골

드’, 1천만원 이상 ‘실버’, 500만원 이상 ‘브론즈’ 등으로 명명했다. 기부액수에 걸맞은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기부자 본인으로서 명예이자 자부심과 행복감을 가슴에 안는 일이다.

경남중고 동문의 기부 행위는 그 수혜자인 모교와 동창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재정의 안정성과 기여도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총동창회관이 창출하는 수익과 함께 지원의 폭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지원의 다각화도 가능해진다.

한편 총동창회는 기부금 접수와 관리,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코로나 우울’ 견고 동창회 활동 재개 신호탄

지구동창회장단 연합모임, 남부산지구 주관 개최 소통·유대 강화 위해 회장단 자주 만나기로 합의



남부산지구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지구동창회 회장단 연합모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고 지구동창회 회장단 연합모임이 남부산지구동창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0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코로나19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자 남부산지구가 이미 예고한 회장단 지구동창회 연합모임 개최를 치고나왔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19사태 발발 이후 개최가 불가피했던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열린 총동창회 산하 단체의 공식 행사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동문 만남 즐거움’을 자제해온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흥겨운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의 9개 지구동창회 중 8곳의 대표단을 비롯, 총동창회 집행부, 남부산지구동창회 집행부 및 고문단 등 30여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은 먼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행사 개최를 고심했다. 원래는 남부산지구 행사 날이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앞두고 지구단위 모임이 없어 분위기를 띄우려고 생각했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00%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지구가 발전해야 총동창회가 발전한다. 각 지구가 주인의식으로 조직을 잘 이끌고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오늘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 두 분이 참석, 경남중고 동창회의 발전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모처럼 열린 행사를 축하한다면서 “지구동창회가 잘되는 기본 요인이 있다. 집행부 간부 요원을 일단 확충해야 한다. 지구마다 간부가 7~8명은 돼야 지구가 강해지고 잘 된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관 개관과 관련, “6월 20일 공식적인 개관식이 있고, 사무국은 6월 1일 이사한다. 6월 2일부터는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 개관식 날 방문하면 선물도 있다. 기념상품으로 T셔츠 판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동문 45명이 관여했다. 의미가 크다. 오늘 기금 모금 마감 날인데 1,200명을 돌파했다. 우리 동창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1수석부회장과 2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예측가능한 동창회가 돼 간다”며 기쁨을 표출했다.

이날 참가자 중 최고 선배기수인 이종철(16회-전 남구청장) 남부산지구 고문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남부산지구 생성이 용호동 동문 모임에서 유래되었음을 설명했다. 이 고문은 “70여년 전통의 동문들이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게 자랑스럽다. 지역의 리더로서, 봉사자로서 부산 지역 경제 부활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참석자 4명의 건배사가 있었다.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겸 동창회관장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잘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건배사를 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서 왔다는 곽두희(24회) 남부산지구 자문위원은 “코로나19로 의기소침했는데 이제 기지개를 펴는 것 같다. 용마의 기상으로 나가자”면서 ‘나도, 가도, 자도 나가자!’고 외쳤다.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차기 지구회장단 모임을 동래·금정지구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경고인의 긍지를 위하여’란 건배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은 “명문고 출신이면 명문답게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앞으로는 건전한 시민이 많아야 명문이 된다”고 말하고 ‘사회적, 개인적 모든 염원을 위하여!’란 건배사를 했다.

이 자리서 지구회장단은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갖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종철 고문은 그동안 동문들의 은혜를 갚는다며 이날 행사 식대 전액(104만원)을 찬조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2차 자리 비용을 쾌척했다.

한편 남부산지구동창회는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성의껏 준비했다며 기념선물을 선사했다.

◇참석자=△총동창회: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겸 동창회관장, 박성철(29회) 제1수석부회장, 김대욱(29회) 제2수석부회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구동창회:사하-최승호(36회) 회장, 신동훈(38회) 사무국장, 해운대-정윤희(36회) 회장, 김태호(38회) 사무국장, 중부산-안풍(28회) 부회장, 동래·금정-정용운(32회) 회장, 박정민(38회) 사무국장, 부산진-연계-이윤조(33회) 회장, 손창오(45회) 사무차장, 북부산-박창제(35회) 회장, 신종국(49회) 사무국장, 강서구-이수관(38회) 사무국장 △남부산-이종휘(32회) 회장, 이종철(16회) 고문, 조선(34회) 고문, 곽두희(24회) 자문위원, 김정현(36회) 부회장, 정윤성(35회) 자문위원, 한수열(40회) 사무국장, 정용중(42회) 조직국장, 조청래(45회) 사무차장, 최상배(45회) 대외협력, 김석훈(50회) 재무차장.





911
142,400,000 KRW 부터



Macan
75,600,000 KRW 부터



Panamera
140,300,000 KRW 부터



Cayenne
103,200,000 KRW 부터



포르쉐 부산 양형욱

- 경남고등학교 54회 졸업
- 한국프랜지 전략기획근무(08~16년)
- 벤츠 한성모터스 근무(16~19년)
- 포르쉐 부산 근무(19년~)

☎ 010-2801-8966

수입차 경력사항

- 17년 벤츠부산북구 Top 3위
- 18년 벤츠부산북구 Top 1위
- 18년 벤츠한성모터스 70대 클럽
- 18년 벤츠AMG판매 Top 2위

☎ 010-2801-8966

재경 기별야구대회 6월 13일 개막 예정

이천시 LG챔피언스 파크...18개 기수 16개팀 출전

재경동창회 주최 제52회 기별야구대회가 오는 6월 13일 개막된다. 코로나 19사태로 4월과 5월 개최 예정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6월로 연기했던 것이다. 6월 개막 계획은 13일(토) 개막해 27(토) 폐막하는 일정이다. 참가팀은 24, 27, 28, 29, 31, 34, 35, 37, 38, 39, 41회, 44·45연합팀, 47·48연합팀, 49, 50회, 54회 이후 연합팀 등 모두 16개이다. 참가기수는 18개 기수로 37회까지 장년부에 속한다.

코로나19사태로 실제 행사 개최는 경기장인 경기도 이천시 LG챔피언스 파크의 개장 여부에 달렸다. 이번 사태가 완화돼 외부인 출입 통제가 풀려야 가능하다. 경기장 개장이 미뤄질 경우 기별야구대회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갖기로 했다 6월 21일로 연기됐던 제2차 용마국토문화기행이 오는 7월 5일(일) 개최된다. 기행 대

상지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이다. 만약 이날 역시 코로나19사태로 행사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상반기 문화기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예정된 3차 문화기행일은 10월 11일(일)이다.

모교 응원가 30곡 표준화 작업 추진

김호진, 손공, 김현욱, 허균형 동문 의기투합

용마 응원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 응원가 1(걸음걸이 가벼이~)에서 20(해 저문 소양강에~)까지,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가요 개사 10여곡 등 모두 30여곡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응원가는 악보와 음원, 정확한 가사집 등 표준이 되는 자료가 없이 구전으로 전해 왔다. 이렇다 보니 기수별로 조금씩 다른 버전이 생겨 합동 모임이나 행사 때 혼

선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재경동문 4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김호진(33회·재경용마합창단원·재학시절 야구선수 체육교사), 손공(38회·용마회보 편집위원·열혈 야구팬), 김현욱(50회·재경용마합창단 지휘자·성악가), 허균형(52회·재경용마합창단 총무·성악 전공) 동문은 지난 4월 모임을 갖고 의기투합, 이 프로젝트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

재경동창회 하반기 행사 예정대로 '고!'

재경동창회 주최이거나 산하 단체 주최의 올해 하반기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 5일 용마코스텔링정기연주회가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열린다. 이어서 제18회 용마골프대회(9월 17일), 제45회 용마테니스대회(10월 9일), 제13회 용마당구대회(11월 7일), 제38회 용마바둑대회(12월 6일) 등 큰 행사들이 줄이어 개막일을 기다리고 있다. 덕형포럼은 현재 일시 휴회 상태이다.

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도움이 될 자료를 가진 동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손공 동문(연락처:010-9003-0258, son 0e58@naver.com)에게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칭찬은 강서지구를 춤추게 하다”

박총동창회장, 깜짝방문해 집행부 격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지난 5월 8일 오후 강서지구동창회(회장 김택영·26회) 격려차 강서구를 '깜짝 방문'했다. 일식집 히토에 백영호(28회) 강서지구 부회장, 마계성(35회) * 이사, 정재형(38회) * 이사, 이수관(38회) *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강서지구동창회의 분위기, 단결력, 밴드활동력 등을 칭찬하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식당 주인장의 참치 해체쇼를 감상하면서 박 총동창회장 특유의 초공정 기운을 전해 받았다.

이날로부터 며칠 후 정재형 동문은 동창회관 3천만원 고액기부자가 되었다. '공정 에너지' 전파 덕이라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강서지구동창회를 방문, 회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는 후문도 있다.

한편 지난 5월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강서지구동창회와 강서리틀야구단과의 자매결연 협약식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었다. 강서리틀야구단은 51회 이정우 감독, 51회 오건진 코치가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 '삼사공사' 억눌린 '끼' 분출

지난 5월 25일 해운대지구동창회 원로 동문 소모임인 '삼사공사'가 변개모임을 가졌다(사진). 연세가 80세 안팎인 삼사공사 회원들은 코로나19사태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끼'를 노래방 마이크에 쏟아내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13회 배대걸, 윤기갑, 14회 김화옥 3동문이 이날의 주인공. 삼사공사 회원 외 이상헌(32회), 박상국(33회), 김태호(38회) 후배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원로선배들을 위로했다.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최상의 선택
Han Sang Motors

Mercedes-Benz 남천전시장

한성모터스 여 윤 석 과장 (54회)

010-2088-1463



지역동창회 회장 연대기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모교 개교 78주년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 역사와 전통은 도도(滔滔)히 흘러내리는 빛나는 강이 되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용마의 기상은 넘실했고 굳세었다. 총동창회 산하 국내 및 해외 지역동창회 역시 오늘의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여 왔다. 총동창회관 내 미니역사관 개설을 계기로 지역동창회 회장단 연대기를 소개한다.....◇

재경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1대	정 동 식	1964. 10 ~ 1979. 10
2대	한 준 석	1979. 10 ~ 1982. 10
3대	문 택 상	1982. 10 ~ 1987. 10
4대	박 종 구	1987. 10 ~ 1989. 10
5대	김 주 곤	1989. 10 ~ 1991. 10
6대	박 영 식	1991. 10 ~ 1993. 10
7대	조 석 제	1993. 10 ~ 1995. 10
8대	김 경 회	1995. 10 ~ 1997. 10
9대	안 우 만	1997. 10 ~ 1999. 10
10대	김 성 규	1999. 10 ~ 2000. 12
11대	이 규 만	2001. 01 ~ 2001. 12
12대	이 상 택	2002. 01 ~ 2002. 12
13대	신 준 호	2003. 01 ~ 2003. 12
14대	천 신 일	2004. 01 ~ 2005. 12
15대	홍 용 찬	2006. 01 ~ 2007. 12
16대	배 재 욱	2008. 01 ~ 2010. 12
17대	임 우 근	2011. 01 ~ 2013. 02
18대	전 재 호	2013. 02 ~ 2015. 02
19대	윤 성 복	2015. 02 ~ 2017. 02
20대	문 규 철	2017. 02 ~ 2018. 02
21대	이 명 규	2018. 02 ~ 2019. 01
22대	문 창 진	2019. 01 ~ 2020. 01
23대	서 기 석	2020. 01 ~ 현재

창원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1대	우 봉 용	1968. 04 ~ 1972. 03
2대	이 진 우	
3대	안 재 흥	
4대	안 종 무	1972. 04 ~ 1981. 03
5대	안 영 규	1981. 04 ~ 1983. 03
6대	하 영 수	1983. 04 ~ 1985. 03
7대	안 영 규	1985. 04 ~ 1987. 03
8대	이 경 재	1987. 04 ~ 1989. 03
9대	이 경 재	1989. 04 ~ 1991. 03
10대	안 종 무	1991. 04 ~ 1992. 03
11대	목 윤 성	1992. 04 ~ 1995. 03
12대	이 성 인	1995. 04 ~ 1998. 03
13대	이 수 창	1998. 04 ~ 2001. 03
14대	김 재 근	2001. 04 ~ 2003. 03
15대	김 진 환	2003. 04 ~ 2004. 12
16대	여 환 부	2005. 01 ~ 2006. 12
17대	김 우 흥	2007. 01 ~ 2008. 12
18대	이 상 열	2009. 01 ~ 2010. 12
19대	김 수 용	2011. 01 ~ 2012. 12
20대	최 신 철	2013. 01 ~ 2013. 12
21대	한 원 우	2014. 01 ~ 2015. 12
22대	김 종 하	2016. 01 ~ 2017. 12
23대	정 영 주	2018. 01 ~ 2019. 12
24대	김 경 압	2020. 01. 01 ~ 현재

울산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박 준 복	1962.10 ~ 1974. 05
2대	정 원 준	1974. 05 ~ 1976. 05
3대	한 무 성	1976. 05 ~ 1978. 04
4대	공석	(1978. 04 ~1982. 04)
5대	김 기 흥	1982. 05 ~ 1984. 05
6대	유 병 철	1984. 05 ~ 1989. 12
7대	김 상 식	1989. 12 ~ 1993. 12
8대	이 상 진	1993. 12 ~ 1995. 12
9대	차 수 명	1995. 12 ~ 1997. 12
10대	김 익 도	1997. 12 ~ 1999. 12
11대	조 준 탁	2000. 01 ~ 2000. 12
12대	김 형 수	2001. 01 ~ 2002. 12
13대	김 성 규	2003. 01 ~ 2003. 12
14대	양 동 건	2004. 01 ~ 2004. 12
15대	박 흥 조	2005. 01 ~ 2010. 12
16대	권 경 덕	2010. 12 ~ 2013. 12
17대	배 명 철	2013. 12 ~ 2014. 12
18대	전 학 명	2014. 12 ~ 2017. 03
19대	김 성 득	2017. 04 ~ 2018. 12
20대	권 기 택	2018. 12 ~ 2020. 02
21대	최 일 진	2020. 03. ~ 현재

김해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박 석 만	1967년 ~ 1969년
2대	전 옥 태	1969년 ~ 1971년
3대	김 영 호	1971년 ~ 1973년
4대	김 영 호	1973년 ~ 1975년
5대	허 강 오	1975년 ~ 1978년
6대	허 강 오	1978년 ~ 1979년
7대	오 동 환	1979년 ~ 1981년
8대	오 동 환	1981년 ~ 1982년
9대	구 본 섭	1982년 ~ 1985년
10대	강 진 평	1985년 ~ 1987년
11대	강 진 평	1987년 ~ 1989년
12대	강 진 평	1989년 ~ 1991년
13대	박 당 회	1991년 ~ 1993년
14대	조 성 진	1993년 ~ 1995년
15대	감 금 찬	1995년 ~ 1997년
16대	최 태 환	1997년 ~ 1999년
17대	최 태 환	1999년 ~ 2001년
18대	박 세 갑	2001년 ~ 2002년
19대	박 세 갑	2002년 ~ 2004년
20대	박 세 갑	2004년 ~ 2005년
21대	권 복 술	2005년 ~ 2006년
22대	권 복 술	2006년 ~ 2007년
23대	권 복 술	2007년 ~ 2008년
24대	최 철 국	2008년 ~ 2009년
25대	최 철 국	2009년 ~ 2010년
26대	김 영 우	2010년 ~ 2011년
27대	김 영 우	2011년 ~ 2012년
28대	김 영 우	2012년 ~ 2013년
29대	이 상 운	2013년 ~ 2014년
30대	이 상 운	2014년 ~ 2015년
31대	조 판 제	2015년 ~ 2016년
32대	조 판 제	2016년 ~ 2017년
33대	최 연 삼	2017년~ 2018년
34대	최 연 삼	2018년 ~ 2019년
35대	차 의 수	2019년 ~ 2020년
36대	차 의 수	2020년 ~ 현재

거제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1대	김 한 상	1983 ~ 1986
2대	이 동 현	1987 ~ 1992
3대	김 장 욱	1993 ~ 1996
4대	조 규 태	1997 ~ 2000
5대	서 수 흥	2001 ~ 2004
6대	엄 수 훈	2005 ~ 2018
7대	윤 병 조	2019 ~ 현재

대전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김 찬 조	1970년대
2대	김 동 순	
3대	윤 형 원	
4대	김 원 섭	
5대	강 재 화	1980년대
6대	최 대 성	
7대	강 수 석	
8대	김 기 인	
9대	조 규 향	1990년대
10대	옥 공 윤	
11대	김 경 회	
12대	장 호 남	
13대	정 윤 모	1999 ~ 2000
14대	김 덕 수	2001 ~ 2002
15대	김 찬 만	2003 ~ 2004
16대	김 성 수	2005 ~ 2006
17대	이 명 훈	2007 ~ 2008
18대	김 성 래	2009 ~ 2010
19대	조 대 우	2011
20대	서 현 수	2012
21대	류 호 용	2013
22대	남 문 경	2014
23대	정 법 동	2015
24대	임 무 택	2016
25대	염 명 배	2017
26대	최 병 철	2018

기수	성명	재임기간
27대	김 경 택	2019
28대	임 형 택	2020

대전지역에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서 과학과 관련 있는 동문들이 많이 와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 대전에 있는 중앙 국가기관과 지방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동문도 많았다. 승진 등으로 타지로 이동하는 동문도 꽤 있었다. 1970년대부터 자리잡은 동문들을 중심으로 동창회가 결성되었고, 1990년대초까지 계속 발전하여 왔다. 1992년 대통령 후보자 김영삼(3회) 동문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동창회를 중심으로 영우회(영남향우회)가 조직되었고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대통령 취임 직후 대전지역동창회의 회장단을 청와대 만찬에 초청하여 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 후 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250여명의 동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동문들을 포함하여 대전, 세종, 충청지역에 140명정도의 동문이 있다.

남가주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3대	추 윤 석	1970 ~ 1972
4대	김 재 철	1973
5대	김 영 민	1974
6대	김 태 준	1975
7대	문 영 주	1976
8대	한 원 구	1977
9대-10대	김 흥 주	1978 ~ 1979
11대-12대	이 원 영	1980 ~ 1981
13대	백 광 조	1982
14대	허 윤 도	1983
15대	김 무 영	1984
16대-18대	김 흥 주	1985 ~ 1987
19대	조 동 준	1988
20대-21대	심 남 철	1989 ~ 1990
22대	김 창 휘	1991
23대	김 흥 주	1992
24대	김 영 민	1993
25대	김 창 휘	1994
26대-27대	김 상 호	1995 ~ 1996
28대	이 현 재	1997
29대-30대	명 철 공	1998 ~ 1999
31대	유 태 복	2000
32대	천 병 규	2001
33대	차 한 열	2002
34대	이 상 걸	2003
35대	황 선 호	2004
36대-37대	이 서 회	2005 ~ 2006
38대	천 병 규	2007
39대	김 만 용	2008
40대-41대	지 흥 석	2009 ~ 2010
42대	김 진 선	2011
43대	김 성 중	2012
44대-45대	지 흥 석	2013 ~ 2014
46대	안 방 호	2015
47대	조 동 준	2016
48대-50대	이 흥 권	2017 ~ 2019
51대	조 성 우	2020

남가주동창회는 1960년대 중반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초기 이민자들의 소규모 모임으로 탄생하여 50년 넘게 많은 동문들에게 사랑받는 모임이 되어 있다. 1960년대 당시 젊은 30대의 3~10회 동문 몇 명이 모여 이민생활의 애환을 나누다가 1970년 정식으로 남가주 경남중고동창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김흥주(7회), 이원영(7회), 김영민(7회), 심남철(10회) 동문 등의 많은 활동과 지원이 바탕이 됐다. 추윤석(7회)동문을 회장으로 뽑고 정관을 만들어 한때 회원이 300명에 이르는 등 LA지역 대표동창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1년에 이상모(15회) 동문이 '용마'라는 이름으로 동창회보 발간을 시작하여 매년 혹은 분기별로 이어오고 있다. 주요 동창회 활동으로 골프대회, 야유회, 동문오찬모임, 연말송년회 등이 있으며,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이 모든 모임은 경남중고동문과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이다.

북가주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김 용 준	1974~
2대	신 정 섭	1982~
3대	김 영 부	1986~
4대	조 동 훈	1988~
5대	추 기 석	1991~
6대	오 창 환	1993~
7대	김 영 부	1996~
8대	손 석 흔	1999~
9대	조 동 훈	2000~
10대	추 기 석	2003~
11대	박 병 호	2006~

지역동창회 회장 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12대	14	김 철 규	2010~
13대	15	전 승 일	2013~
14대	11	박 병 호	2017~
연혁	북가주지역(샌프란시스코 지역)동창회는 1973년 7월30일 결성되었다. 이로써 워싱턴, 뉴욕, 시카고, 남가주에 이어 5번째 재미 동창회로 탄생했다. 초대회장에 김용준(5회) 동문, 부회장에 조동훈(9회) 동문, 총무에 김재성(11회) 동문, 재무에 추기석(11회) 동문, 서기에 장호남(17회) 동문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 당시 12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다.		

워싱턴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5	이 형 석	1980년대
2대	5	김 동 석	
3대	5	김 갑 수	
4대	7	김 영 호	
5대	12	홍 영 석	
6대	14	최 남 천	
7대	15	성 광 수	
8대	17	안 준 철	
9대	18	구 경 명	2004 ~
10대	22	김 기 공	2013 ~ 2015
11대	22	이 동 진	2015 ~ 2017
12대	24	전 용 빈	2018 ~ 2019
13대	24	김 성 환	2020 ~ 현재

연혁 워싱턴/볼티모어지역동창회는 1980년도 초반 일찍이 이 지역으로 이민이나 유학 온 동문들이 모여 결속하면서 형성되었다. 형성 당시 주도한 5회 이형석 동문이 상당한 기간동안 회장직을 맡아 왔다. 그러다가 기수대로 차례로 2년간씩 회장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항상 30~40명 정도의 동문이 명단에 있으며 불과가 모임, 골프와 회식 그리고 구경맞이 파티와 신년동창회 모임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다. 박경배(290회) 동문은 거의 30년 동안 현재까지 초창기 사무국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제9대 18회 구경명 회장은 동문이 아닌란 사실이 밝혀졌다.

애틀란타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16	이 원 식	1996 ~ 2006
2대	공석		2007 ~ 2008
3대	21	이 윤 남	2009 ~ 2010
4대	23	홍 기 태	2011 ~ 2012
5대	22	김 현 길	2013 ~ 2014
6대	28	최 병 주	2015 ~ 2016
7대	29	안 근 식	2017 ~ 2018
8대	32	권 건 오	2019 ~ 현재
연혁	1996년 올림픽을 계기로 이원식(16회) 동문이 회장, 박성근(27회) 동문이 총무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2005년부터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지금까지 모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2대 회장 공석기간에는 31회 석영길 동문이 동문회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었다.		
회원명	서충원(14회), 전영성(14회), 이원식(16회), 박영원(17회), 김태진(19회), 박동철(21회), 이윤남(21회), 이정규(21회), 김현길(22회), 홍기태(22회), 김우갑(26회), 최병주(28회), 안근식(29회), 박인성(30회), 추태명(30회), 권건오(32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뉴욕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5	어 수 일	1974~1976
2대	7	김 동 준	1970년대
3대	6	박 중 곤	
4대	4	최 갑 중	
5대	3	김 세 원	
6대	4	박 화 수	1980년대
7대	6	김 승 역	
8대	7	추 윤 석	
9대	10	황 정 옥	
10대	11	이 우 인	
11대	13	곽 동 명	
12대	15	이 동 명	
13대	12	최 의 정	
14대	14	서 부 근	
15대	17	임 대 양	
16대	19	김 종 운	1999 ~ 2000
17대	20	김 형 수	2001 ~ 2002
18대	22	김 동 환	2003 ~ 2004
19대	25	김 정 필	2005 ~ 2006
20대	27	조 형 선	2007 ~ 2008
21대	30	김 기 홍	2009 ~ 2010
22대	26	김 치 갑	2011 ~ 2012
23대	24	김 도 명	2013 ~ 2014
24대	27	장 대 원	2015 ~ 2016
25대	12	박 기 환	2017 ~ 2018
26대	24	김 정 필	2019 ~ 현재

연혁 1974년 12월27일 36명의 동문이 파레스에서 만나 창립총회를 가졌다. 회장에 어수일(5회), 부회장에 김동충(7회), 총무에 김해락(12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초기에는 모국에서 보내준 회보를 사진 복사판으로 다시 만들어 현지동문들에게 배포를 했으며 자체 회보도 프린트식으로 만들어 소식을 나누었다. 창립 초창기부터 활발하게 시작을 했으며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 때는 200명 이상이 모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동문 숫자가 많이 줄었다.

시카고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5	김 봉 현	1979 ~ 1982
2대	5	김 광 수	1983 ~ 1985
3대	9	조 석 재	1986 ~ 1988
4대	8	김 진 환	1989 ~ 1991
5대	11	김 석 홍	1992 ~ 1993
6대	11	배 준 환	1994 ~ 1995
7대	12	전 용 찬	1996
8대	12	이 근 보	1997 ~ 1998
9대	12	허 남 석	1999 ~ 2000
10대	16	유 정 호	2001 ~ 2002
11대	14	최 윤 한	2003 ~ 2004
12대	16	김 무 정	2005 ~ 2006
13대	19	박 진 철	2007 ~ 2008
14대	20	김 중 한	2009 ~ 2011
15대	20	강 대 철	2012 ~ 2014
16대	20	박 영 준	2015 ~ 현재

연혁 용마의 기개를 품고 용지를 펼치려고 태평양을 건너 낯설은 환경에 도전한 우리 경남중고동문들이 비평과 혹한의 도시 시카고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60~70년대이다. 바쁜 학업 생활과 초기직장 생활등으로 서로 연락이 뜸하다가 1970년대 후반 들어 초대회장인 5회 김봉현 동문을 주축으로 미국 중서부 시카고지역동창회가 발족되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동문들의 수가 늘어나 16회 유정호 동문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2001년 도 당시에는 회원이 40여명으로 늘어 지역동창회의 꽃이 활짝 피었다. 지금은 초기 선배들이 작고했거나 연세가 들어 활동이 어려워 동창회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30회 이후 새로운 동문이 발굴되지 않아 간혹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후배발굴을 위해 현재 7~8명의 모든 동문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질랜드지역동창회 회장 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16회	김 수 홍	1997.8.30 - 1999.8.19
2대	18회	차 준 호 (옛이름: 순도)	1999.8.20 - 2001.8.9
3대	20회	김 진 원	2001.8.10 - 2002.2.9
4대	23회	이 상 수	2002.8.10 - 2003.9.6
5대	13회	박 성 규	2003.9.7 - 2004.8.27
6대	33회	박 봉 수	2006.3.24 - 2008.3.8
7대	15회	정 강 홍	2008.3.9 - 2009.8.28
8대	23회	정 동 호	2009.8.29 - 2010.12.8
9대	32회	왕 중 모	2011.3.16 - 2013.3.15
10대	36회	김 성 중	2013.3.16 - 2015.3.24
11대	37회	하 병 갑	2015.3.25 - 2016.3.15
12대	11회	조 학 제	2016.6.22 - 2018.4.26
13대	29회	이 왕 봉	2018.4.27 - 2020. 현재

연혁 뉴질랜드지역동창회는 1995년 8월 16일 오클랜드시 킹피어에서 10여 명이 모여 친목회를 결성하였다. 친목회 회장을 김수홍(16회) 동문이 맡았고 부회장에 차준호(18회/옛이름: 순도), 총무 안준모(28회), 감사 노경현(16회) 동문으로 출발했다. 1997년 4월에 차준호(18회) 부회장이 본부 동창회를 방문하고 본부 동창회 산하 지역 동창회로 출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부 동창회의 승인을 받았다. 1997년 8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본부 동창회 산하 뉴질랜드 지역 동창회로 발족했다. 뉴질랜드지역동창회는 25년 동안 약 55명의 동문들이 영주권자로 이주해 살면서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살다 역이민한 동문과 미국, 호주, 홍콩으로 이주한 동문들이 있었다. 현재 동문의 수는 25명이다.

밴쿠버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5	김 형 도	1983 ~ 1984
2대	11	김 지 영	1984 ~ 1985
3대	12	박 현 철	1985 ~ 1986
4대	18	박 광	1986 ~ 1987
5대	18	김 정 화	1987 ~ 1988
6대	18	이 왕 희	1988 ~ 1989
7대	20	김 길 우	1989 ~ 1990
8대	20	안 정 홍	1990 ~ 1992
9대	5	김 형 도	1992 ~ 1993
10대	11	김 지 영	1993 ~ 1994
11대	12	박 현 철	1994 ~ 1995
12대	18	박 광	1995 ~ 1996
13대	14	신 원 부	1996 ~ 1997
14대	17	이 두 인	1997 ~ 1998

	기수	성명	재임기간
15대	17	배 진 화	1998 ~ 1999
16대	18	이 왕 희	1999 ~ 2000
공석			(2000 ~ 2010)
17대	23	김 교 철	2010 ~ 현재
연혁	1968년 김형도(5회) 밴쿠버 도착, 1970년 김지영(11회) 밴쿠버 도착, 1983년 김형도(5회)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7명의 동문과 이영진은사(독일어)를 모시고 동문회를 결성하였다. 매년 연말 송년 모임과 다음 기수가 회장을 맡아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고와 합동아우회,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으며 1994년 제1회 용마배 골프 대회도 개최하였다. 1995년 동문가족아우회 때는 전세버스를 타고 30명이 넘는 동문가족들이 호프에 있는 카와와 호수로 가서 김명성(19회) 동문과 만나 골프를 치며 음식을 나누고 돌아왔다. 이때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로 동문의 수가 32명이나 되었다.		

상해(화동)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30	조 현 수	2005. 09 ~ 2006. 03
2대	24	김 호 성	2006. 03 ~ 2009. 06
3대	30	박 세 우	2009. 06 ~ 2011. 02
4대	34	박 창 주	2011. 02 ~ 2017. 12
5대	45	조 진 옥	2018. 01 ~ 현재
연혁	상해(화동)지역 동창회는 2005년 9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5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약 100여명의 동문이 동창회를 거쳐 갔다. 중국에서 자랑스러운 용마인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회원명	김성진(19회), 권장우(34회), 김명수(34회), 박창주(34회), 정원철(34회), 최병철(43회), 진명환(44회), 조진옥(45회), 김인호(46회), 김택형(47회), 김중규(50회), 주원석(51회)		

산동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17	한 중 업	2005년 ~ 2006년
2대	20	윤 봉 태	2006년 - 2008년
3대	22	최 학 봉	2008년 ~ 2010년
4대	27	신 용 도	2010년 ~ 2012년
5대	28	김 용 덕	2012년 ~ 2013년
6대	27	김 병 용	2013년 ~ 2014년
7대	31	정 용 재	2015년 ~ 2016년
8대	39	이 창 화	2017년 ~ 2018년
9대	36	한 만 준	2019년 ~ 현재

연혁 산동지역동창회는 2005년 3월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김극기(17회), 이성원(22회) 동문이 주축이 되어 18명으로 청도중심인 흥공중로 동원참치(17회 한중업 동문 경영)에서 창립되었다. 지역은 청도를 중심으로 위해, 연대, 동영 등 산동성 내에 거주하며 사업체 운영, 한국에 거주하며 중국 산동성에 사업체 운영, 주재원 동문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동문간 친목 도모와 정보교환 등 선부상조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매월 동문회를 개최하며, 역사가 15년 되었다. 매년 가족 동반 모임, 골프모임, 당구모임 등을 통한 교류부터 청도 부산고 동문회와 합동모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다. 청도지역 내에서는 어느 동문 모임보다는 교류가 활발하여 타 동문 모임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는 동문회라 자부하고 있다. 최근 산동 지역의 경제교류가 축소되는 관계로 많은 동문들이 귀국하거나 동남아로 이전하여 회원수가 줄고 있으나 위축되지 않고 소수정예의 동문모임으로서 전통을 유지하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명 김극기(17회), 한중업(17회), 박동명(17회), 김홍기(17회), 이도형(18회), 류달현(18회), 이기철(19회), 윤봉태(20회), 김대원(20회), 이성원(22회), 김형경(22회), 최학봉(22회), 박준식(23회), 변중석(24회), 구자웅(24회), 김동철(25회), 한석록(26회), 김석태(26회), 장민생(26회), 신용도(27회), 김병용(27회), 위오기(27회), 김용덕(28회), 이성욱(29회), 조일래(30회), 김영태(30회), 정용재(31회), 백현철(32회), 김용현(33회), 신봉섭(33회), 강정구(33회), 김남규(34회), 강동석(34회), 남해원(34회), 한만준(36회), 이승호(36회), 박순우(37회), 한옥환(38회), 박진우(38회), 이창화(39회), 김현석(40회), 김찬원(41회), 김명갑(41회), 정윤호(41회), 김만석(41회), 김상하(42회), 최원선(42회), 김경근(44회), 박봉재(44회), 김해준(45회), 이상훈(46회), 이정규(46회), 김응태(47회), 류성환(48회), 광동하(55회)

호치민지역동창회 회장연대기

	기수	성명	재임기간
1대	20	박 철 완	2013. 04 ~ 2016. 12
2대	25	이 석 호	2016. 12 ~ 2019. 03
3대	33	김 성 준	2019. 03 ~ 현재
연혁	호치민지역동창회는 2012년 12월 12일 39회 정진훈 동문이 설립추진위원장이 되어 준비했다가 2013년 4월 18일 9명으로 정식 발족되었다. 2020년 현재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명	박준원(15회), 박철완(20회), 한준수(21회), 조일래(30회), 김성준(33회), 김용현(33회), 옥중훈(33회), 안려용(34회), 옥광석(34회), 윤중현(35회), 이한호(36회), 변기열(38회), 김태원(38회), 정진훈(39회), 최복수(39회), 박영준(40회), 신창훈(41회), 안용성(47회), 이정훈(52회), 이성현(54회), 강석주(59회), 김민성(64회)		



양중학 회장



박흥기 동문



정순모 동문



윤연도 동문

졸업 70주년 홈커밍데이 약속 지킨 4회 ‘용마 영웅’

**박흥기 정순모 양중학 윤연도 동문, 감격의 경남중 방문
총동창회·학교 인사와 다과회...야구부 후원 600만원 전달**

경남중고 7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졸업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지난 5월 4일 오후 경남중 스마트정보실에서 제4회 졸업생 4명의 모교방문 행사가 열렸다. 양중학 동기회장을 비롯, 박흥기 정순모 윤연도 동문이 참가했다. 이들 동기생 4명은 바로 용마 영웅이다. 일제치하에 태어나 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새천년의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90개 성상(星霜)을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원래 8명의 동기생이 참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4명이 불참했다. 건강상의 이유이다. 생존 동기생은 40~5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격월로 갖는 동기회에는 6~7명이 참가한다고 한다. 구순(九旬)의 동기생들이 정기적으로 건강하게 모임을 갖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선배 기수가 건재함이 경남중고 동문의 자랑이자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오후 2시 30분이 넘어서자 4회 동문 한 명, 한 명 3명이 모교를 찾아왔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후배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 먼저 교장실로 안내됐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의 환대를 받고 차를 마시면서 참가를 약속한 동기생을 기다렸다. 이 자리서 양 회장은 저조한 참가자수에 대해 설

명했다. “정치근(전 법무부 장관) 동기도 어제아래(옛그저께) 전화로 ‘안 되겠다’고 연락이 왔다. 몇몇 친구들 전화해도 회답이 없다. 연락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이 교장실에 들어왔다. 양 회장은 박 총동창회장에게 “동창회관 마련에 도움이 못됐다. 우리가 세상을 뜨기 전에 박 회장이 동분서주하여 건립해줘서 고맙다”며 치하했다.

오후 3시, 더 이상의 4회 동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총동창회 사무국에서는 행사 장소인 스

마트정보실에 다과를 차렸다. 경남중 행정실에서 좌석을 미리 ‘ㄷ’자형으로 배열해 두고 테이블마다 음료수를 올려놓았다.

4회 동문들과 총동창회 및 경남중 인사가들이 행사장에 착석했다. 옥동훈(25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양 회장이 4회 동기회 졸업 제70주년 모교방문 행사의 시작을 선언했다. 작고 은사와 동기에 대한 묵념에 이어 내빈축사가 진행됐다.

박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경남중고 동문 역사에서 졸업70주년 기념행사는 최초이다. 오늘은 새로운 동문 역사를 세우는 날이다. 모교사랑과 건강 유지, 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참석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행사가 진행돼 축하드린다”면서 동문 사회에서 ‘따르고 싶은 전통’이 생긴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되길 기원했다.

〈기사 23면에 계속〉



4회 동기생 4명이 참가한 졸업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 마지막 순서인 기념촬영 모습.

“꿈엔들 잊으리오... 모교와 은사, 그리고 옛 친구들”

‘4인의 영웅’ 소회

4회 졸업7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에서 참가자 4명은 각자의 소회를 밝혔다. 차례대로 간추려 소개한다.

▲정순모(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많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순수한 역사적 모임이다. 역사는 연대기적 기록의 일반사와 참된 이치와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의 삶과 본질을 다루는 정신사로 나뉜다. 오늘의 모임은 정신사적 맥락에서 이뤄진 의미 있는 행사이다. 70년 전 우리가 공부하던 곳을 찾아와 옛 스승과 교장님을 회상합니다. 오늘 김 교장님과 총동창회장

님을 만나서 기쁘다. 이런 만남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신적으로 매우 풍성하고 순수한 중요한 일이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윤연도(공직에서 은퇴)=경남중고의 명예를 드높였던 것을 2가지로 생각한다. 재학시절 청룡기야구대회 2연패와 황금사자기야구대회 3연패로 전국적으로 학교가 이름이 났다. 당시 야구 선수 중에는 장태영을 비롯, 4회가 7명이나 되었다. 또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단체부문 경기중 1위, 경남중 2위였다. 개인부문에서는 우리가 1위를 차지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지는 못했다. 후배들이 노력해서 그때의 영광을 다시 찾아 달라.

▲양중학(교직에서 정년퇴직)=윤연도 동기의 말에 덧붙여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졸업8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도전하겠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지 모르는 나이이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번 행사는 마치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결국 우린 해냈다.) 내가 저 세상 가면 니(박흥기 동기생)가 바통을 받아라(결연한 의지 표출).

▲박흥기(통신사 기자 출신)=총동창회에서 행사 주관 모양새가 됐다. 감사하다. 초창기 모교사를 풀어놓으려면

2박3일은 해야 한다. 안용백 교장선생님이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으로 재직할 때 (출입기자로서) 자주 방문해서 모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안 교장님 아호가 배산(杯山)이다. 각계의 실력자들이 술친구였다. 이들이 경남중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안 교장님은 교사(校舍) 마련, 실력 있는 교사 스카우트, 우수한 학생 편입학 등으로 학교를 단시간에 일류로 만들었다. 야구부 창설과 육성에 큰 공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안 교장님은 학생자치회를 만들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좌·우익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에 와서 안 교장님을 두고 친일 운운하는데 경남중고 역사에서 ‘큰 산’과 같은 분이다.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민주화 영웅’ YS 흉상, 경남중에도 세운다

후배들에게 민주·개혁·불굴의 교훈 전해
총동창회·학교·작가, 설립 장소까지 합의

‘민주화의 영웅’ 김영삼(YS·3회) 전 대통령의 흉상이 경남중에도 세워진다. 지난 5월 29일 오후 경남중에서 YS 흉상 안치장소 선정회의가 열렸다. 총동창회와 학교 측이 YS 흉상 건립을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총동창회에서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과 남진현(19

회) 동창회관장·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 학교 측에서는 김미정 교장과 류삼형 교감이 참석했고, 흉상 제작자 박희규(29회 명예동문) 작가와 좌대 제작을 맡을 정희욱 작가가 자리했다. 차의수(29회) 김해지역동창회장이 김해에 거주하는 박 작가와 대동했다.



경남중 교정에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을 세우기 위하여 총동창회와 학교, 작가 등 관계자 모임이 지난 5월 29일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에 안치될 YS 흉상은 경남고에 건립된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의 흉상과 동일하며 좌대는 달라진다. 경남중 좌대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만들 계획이다. 학교 상황과 학생 연령대를 고려한 박 작가의 예술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총동창회는 좌대에 새길 휘호 선정은 논의 중에 있다.

안치 장소는 학교 운동장에서 볼 때 본관 정문 왼쪽 화단으로 결정했다. 정남향의 양지 바른 곳이다. 흉상은 본관 건물을 뒤로 하고 넓은 운동장을 지켜보게 된다. 마침 국기 게양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의미를 더 하고 있다. YS 흉상은 민주와 개혁, 그리고 불굴의 교훈을 자라는 후배들에게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중에 세워질 YS 흉상은 박 작가가 경남고의 것을 제작한 뒤 원형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보다 쉽게 진행됐다.



경남고에 안치된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

청동 흉상 주물비와 좌대 비용 1,900만원은 총동창회가 부담한다. 7월 초순 초안이 마련되면, 총동창회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8월초 완공 예정.

흠커밍데이 미루고, 모교 지원 선집행

44회, 경남고에 타격 교정기·발전기금 전달

44회 동기회(회장 안병규)의 모교와 동기생 사랑은 각별하다. 경남고 야구부 감독이 전광렬 동기라서 더 그렇다. 코로나19사태 와중에서도 이들의 ‘사랑 집행’은 과감하게 실현됐다. 44회는 졸업 30주년 기념 흠커밍데이 행사 일정은 연기하되 모교 후원은 ‘선집행’의 결단을 내렸다.

44회 흠커밍준비위원회(위원장 탁정환)는 지난 4월 3일 오후 경남고 교

장실에서 ‘랩소도 타격 교정기 및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모교 야구부 기량 향상에 꼭 필요한 장비와 학교 발전기금 전달은 미룰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이번 랩소도 타격교정기(660만원)는 지난 1월 43회 동기회가 경남고에 지원했던 ‘랩소도2.0 피칭’에 이은 첨단장비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4회는 학



44회 동기회가 경남고에 랩소도 타격교정기를 선물하고 발전기금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우도균, 문형준 동문, 정대호 교장, 탁정환, 안병규 동문, 전광렬 감독.

교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병규 동기회장, 탁정환 흠커밍준비위원장, 문형준 흠커밍준비위 간사, 우도균 동기회 사무

국장, 전광렬 감독 등이 참석했다. 한편 44회는 흠커밍 행사를 오는 11월 7일(토) 열기로 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한다.

<22면에 이어서>

“졸업 70주년 흠커밍데이 전통 세워...4회 75주년 행사도 하자”

박 총동창회장은 “4회 선배님들이 100세에 졸업 80주년 기념행사를 갖길 바란다”고 말하고 개관하는 동창회관을 방문해서 후배들과도 어울려주길 요청했다.

김 경남중 교장은 이 자리서 “25대 교장으로서 역대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이 쌓아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겠다. 학생 한 명 한 명, 건물 하나하나에 섬세한 눈으로 살피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4회 졸업생 선배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감격스럽다. 깊은 역사와 전통, 각계각층의 훌륭한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자랑”이라 말하고 “동창회의 물심양면 지원에 감사드린다. 동창회

관 개관이 자랑스럽다. 후배 학생들 사회에 기여할 일꾼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4회 동기회장은 행사 개최에 도움을 준 총동창회와 경남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대회사에서 “우리가 모교 방문을 마음먹은 지 오래됐다. 한 번 해보자고 열 몇 명이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났다. 오늘 대표 4명이 왔다. 친정집 나들이 가는 셈치고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오기는 왔다. 모두가 고맙고 대단히 반갑다”고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말했다.

이어 박흥기 동문의 참가 4회 동기생들에 대한 소개, 경남중 야구부 박민규 주장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이 자리서 4회 졸업생들이 마련해온 경남중 야구부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양 4회 동기회장이 경남중 김상욱 야구부 감독에게 건넨 후원금은 600만원이라는 거금이였다. 참가자가 몇 명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연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 큰’ 기부라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총동창회는 이날 기념품(정관장) 7개를 준비해와 4회 졸업생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개는 경남중 야구부 선수들에게 선물했다.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이 건배제의를 했다. 남 자문위원장은 “선배님들의 모교사랑과 동창회 발전 기여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건배사를 힘차게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의 동창회 소식 전달에 이어 4회 동기생들의 소회 피력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은 4회 참가자들에게 “졸업 75주년 기념행사를 갖자”고 제의했다. 4회 참가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가 제창을 갖고 이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참가자=△4회 졸업생-양종학 박흥기 정순모 윤연도 △총동창회-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이영학(26회) 용건회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양걸·전삼록(이상 41회) 총동창회 부회장, 권우일(45회) △경남중-김미정 교장, 류삼형 교감.

세차 서비스로 전국망 구축... '차량 피부과전문의' 자부

“활력과 혁신”
용마인의 삶터 ②

‘갓차’ 대표이사
이원준(53회) 동문

‘갓차(GOTCHA)’를 소개해 주세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회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실 것 같으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5년 전입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과 함께, 한국에 없는 대구(□□)샤브샤브집 런칭을 준비하느라 일본과 한국을 바빠 왕래하다보니 세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 주차한 차창에 월세차 명함이 꽂혀 있기에 좋다 싶어 월세차를 시켰죠.

한 3개월 정도 했을까요? 세차 상태도 좋지 않고, 출고한지 4개월밖에 안 된 차에 스크래치가 엄청 생겨 있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세차를 해서 이렇게 됐나?’며 화가 나 있었는데, 퇴근 때 마침 월세차하는 사람들이 다른 차를 세차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지켜보니 단 10분 만에 차 3대를 세차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먼지털이로 툭툭 털더니 쓰던 타월로 대충 닦고 또 그 타월로 다른 차를 닦고.

가까이 가서 “원래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하기에, “타월 한 장으로 몇 대를 닦아도 되냐? 돈 더 줄테니 제대로 해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난 여기 사장도 아니고 이렇게 배웠다. 방법을 모른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가 있나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마다 월세차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도 노출되지 않는지 신기했고 또 놀랐었죠.

저와 같은 니즈를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부업으로나 해 볼까?’하고 마음먹고, 명색이 사업인데 대충 할 수 있나, 하려면 제대로 잘 해야겠다고 각오를 하고서 미국과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고급세차(디테일링) 과정을 수료했고 강사자격증(RUPES Detailing Academy 슈퍼리어 등급)까지 취득했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 일부지역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고객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후 1년 여 준비를 마치고 2016년 8월에 갓차 서비스를 시중에 런칭했습니다.

카케어(Car-Care) 플랫폼 ‘갓차’(http://igotcha.co.kr/)를 이끌고 있는 이원준(53회) 동문은 불만스러운 현상을 혁신적으로 타파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현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 스타트업 리더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던 2000년대에는 MBC, OGN, SBS 등 언론사 PD경력도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편집위원 박종기>



세차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갓차’ 대표 이원준 동문은 재료와 부품도 성능향상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도대체 어떻게 세차 했기에’란 불만과 의구심에서 사업 출발 끊임없이 연구와 훈련... 앱 곧 열여 용품 인터넷 최저가 공급

이제 회사 이름을 설명드리자면, 영어로 GOTCHA입니다. ‘잡았어, 알겠어’라는 뜻인데요, 어떤 분은 “세차의 신(God 車) 아니냐”고도 하십니다. 좋은 해석이라 고마운 말씀이지만, 세차에 대한 불만이 창업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 ‘고객을 기만하는 서비스를 잡겠다’라는 저희만의 속뜻이 있습니다.

-영업 범위는 어디이며, 고객층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전국 광역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살고 있거나 직장 근무 중 언제든 주차된 곳에서 세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가까운 세차장을 자동으로 추천받고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 주 고객층이며, 차주의 연령대는 4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갓차 회원만의 메리트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대표전화번호 1544-5853, 카톡으로는 @갓차 친구추가, 웹사이트 igotcha.co.kr를 통해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7월에 오픈예정인 갓차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고, 회원전용 쇼핑몰인 ‘오마이갓차몰(OMG Mall)’을 통해 다양한 세차용품들을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갓차는 경쟁사에 비해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구독형 방문세차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갓차가 유일해서 동종 경쟁사는 없고요, 경쟁력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망이 쉽게 보일 순 있지만, 특히 아파트 세차는 좀 특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업계에서 전국망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는 기존 영세 세차업체와의 유대와 상생관계,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세차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

난 3년간 밤낮으로 전국을 다니며 협상하고 조정해 가면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한밤 자는 중에 살해협박 전화도 받아보기도 했고, 완전히 전쟁 치르듯이 사업 지면을 구축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싸우고 욕하던 업체들과 정도 들고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이 점을 높게 평가한 SK에너지 사업팀이 세차플랫폼을 갓차와 공동개발, 운영하자는 MOU를 지난 5월에 체결했고, 오는 가을부터 SK주유소에서 기계세탁을 마친 차량의 실내외를 케어하는 베타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서비스업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고, 향후 더욱 성장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영방침 또는 미래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수도권 확장과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도 강화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연관된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 및 프로모션도 기획 중입니다.

제가 해외로 가서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면서 느낀 것은 세차 일에도 세계적인 절차와 표준이 있다는 점과, 고객 차량의 외관 상태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와 부품과 공법을 써야 고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관해서는 갓차는 피부과전문의입니다. 재료와 부품도 성능향상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어서 그만큼 가격대가 높습니다.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갓차 직원은 글로벌한 처리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최고의 상태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훈련한 뒤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펼쳐오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보통, 스타트업은 사업초기에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익이 없는 데쓰밸리(죽음의 계곡) 구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희는 가장 힘들었던 창업 3년차부터 정부과제가 겹쳐서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아이템이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셨지만, 어느 날 문득,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25면에 계속>

‘용마 선량’ 4명, 제21대 국회 진출

서병수(25회) 하영제(27회) 박성중(30회) 조경태(40회) 동문 당선



서병수 동문 하영제 동문 박성중 동문 조경태 동문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중고 출신 동문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이번 선거에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거두었다. 당선자는 서병수(25회·총동창회 부회장·부산 부산진갑), 하영제(27회·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성

중(30회·서울 서초을), 조경태(40회·부산 사하을) 동문이다. 모두가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선전했던 박대동(23회·총동창회 고문), 구상찬(31회), 진성호(35회), 김영문(37회), 이수명(38회), 최택용(41회) 동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동문사회는 ‘용마 선량(選良)’들이 국회무대에서 좋은 정치를 펼쳐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부합동산행 연기 100대 명품산행 재개 7월 5일 대미(大尾) 용마산악회

총동창회 산하 동기회 및 직능·동호회 등 각종 조직과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5월 들어 재개를 시도했던 행사와 모임을 다시 연기,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용마산악회는 오는 6월 21(일)일 갖기로 했던 경부합동등반을 일정 계획 없이 연기했다. 2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행사임을 감안한 조치이다. 대신 이날은 정기산행 일정으로 거제 북병산을 등반한다. 오는 9월 13(일)과 12월 13(일)은 이미 예고된 대로 영남알프스와 경주 무장산(또는 금정산 납화등반)을 각각 등반한다.

재개를 기약했던 100대 명품산행은 또다시 일정을 늦췄다. 대망의 100차 명품산행은 오는 9월 6일 실현될 예정이다. △97차 7월 4(토) 오대산→곰배령 인근 민박 △98차 7월 5(일) 점봉산 곰배령 △99차 9월 5(토) 가리산→대암산 인근 민박 △100차 9월 6(일) 대암산.

경미회, 족구대회로 ‘코로나 블루’ 하이킥!

13일 금정산성서 6개팀 자웅, 용마 기상 드높여

코로나19사태가 세상을 뒤흔들어놓고 움츠러들게 하여도 용마의 기상은 꺾이지 못한다.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회장 우영환·40회)는 오는 6월 13(토) 오전 10시 금정산성 물레방아 집에서 제2회 족구대회를 가진다. 지난 2월 6일 신년회를 갖고 4개월 만에 갖는 정례행사이다. 지난 4월 정기모임을 5월로 연기했다가 여의치 않자 아예 취소했다. 이번 족구대회는 예전보다 더 각박하고 경직화 된 사회 분위기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기회이다.

이날 족구대회는 경미회 운영진(부회장단 포함) 1팀, 4개 분과위원회 각 1팀, 총동창회 집행부 1팀 등 총 6개 팀이 출전한다. 우 회장이 시상금 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찬조했다. 대진표는 당일 추첨하며, 선후배간 핸디는 없다.

그동안 ‘잘 지내십니까?’ ‘잘 계십니까?’란 말이 인사가 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동문 선후배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갉아먹어 버렸다. 하지만 패

기와 열정으로 뭉친 용마동문의 끈끈한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미회 분과위원회별로 갖는 ‘번개모임’이 조직의 건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사회공헌, 미래발전, 친목교류분과위원회 등은 신입회원 환영식을 겸해 ‘우정의 갈증’을 풀었다.

경미회는 지난 5월 2일 오후 미포 제일초장에서 운영진 긴급회의를 갖고 최영준(41회) 동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했다. 현재 사회공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동문은 내년 1월부터 경미회 회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한편 6월13일의 족구대회 행사를 앞

두고 지난 5월 30일 서대신동 꽃마을 ‘나들목’에서 친목교류분과(위원장 전삼록·41회)와 사회공헌분과(위원장 최영준)가 전력 탐색 및 자체 베스트 멤버 선발과 평가를 위한 친선경기를 가졌다.

참석자:△친목교류분과-전삼록(41회) 김영철(41회) 정용중(42회) 강병규(43회) 안병규(44회) 조청래(45회) 신정일(46회) 최우영(51회) 정상중(52회) 이원준(53회) 송승운(53회) 고지현(54회) △사회공헌분과-최영준(41회) 김영휘(43회) 김상수(45회) 구자삼(45회) 최원석(46회) 이충현(49회).



경미회 친목교류분과·사회공헌분과 친선 족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면에 이어서>

그래서 ‘한 번 검증해 보자’ 싶어서 2019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대회의 NEST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부산은행과 MBC가 주관했던 B-START UP 챌린지라는 대회에도 연달아 지원해봤습니다.

결과는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어서 부산경제진흥원장상도 타고, 부산대표기업으로 선정도 되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들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던 제게 큰 힘이 되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경영자로서의 조언이 있다



사업장을 소개하는 이원준 동문.

면?
▲‘사업해도 되겠나? 어떻게 하면 돼?’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저는 ‘하지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사업을 하니?’라고 되묻습니다. 그 대답은, ‘사업은 사업 DNA가 있다’ 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해라! 해 보고 후회해라. 맞는 게 두렵다면 싸우지도 말아라.

깡부터 키우고 시작해라! 단,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 평가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는 경남중고 동문으로서 총동창회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을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밝혀 달라.
▲전국 최고 명문의 일원으로서 저는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님의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동문회가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

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후배 양성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재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강연 등)나 대회 등을 개최, 다양한 분야에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끌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총동창회에 각 직능별 동문회가 있는데 IT계열 동문회는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역할을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경 동창회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살고 있던 경남중고 동문은 하나입니다. 선배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부심, 후배들도 똑같이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중고 선배님, 후배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동기생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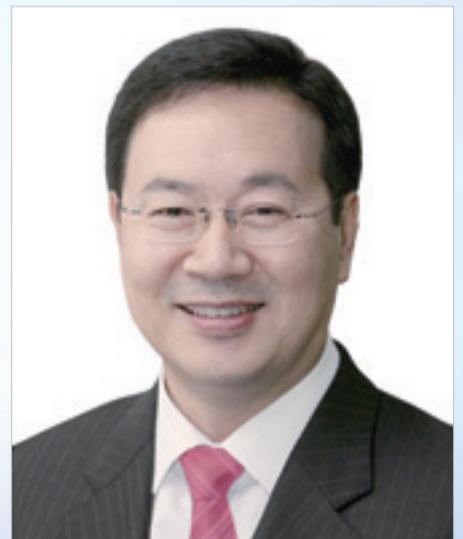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서병수(25회)
25회 동기회장 송정규 외 동기 일동

“용마인의 힘찬 기상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뛰고 또 뛰며 실천하는 정직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하영제(27회)

하영제 동기생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27회 동기회장 김병호 외 동기 일동





박성중 동기생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2020년 30회 본부동기회 임원 구성>

☆회 장 : 이명건 ☆감 사 : 서강태

☆부회장 : 권용택 김기섭 김기업 김재중 박동욱 박인달 서민석 송한식 신영주 신윤원 안종화 이상필 이인길 정영호 최상호 한성원 (이상 16명)

○고 문(본부동창회 부회장 및 전직 동기회장 겸임) : 김현태 서하수 윤성덕 윤인태 정경목 최우철 (이상 6명)

○고 문(전직 동기회장) : 김병기 노치훈 송영환 유정동 이학수 하규양 황철민 (이상 7명)

△총 무 : 우홍제 이원용 홍인기

☆이 사 : 강수철 구의본 권오봉 김경수 김광호 김동준 김세일 김영준 김영호2 김용환 김우삼 김육성 김인섭 김진천 노동춘 문장호 박규완 박기형 박모철 박성훈 박영홍 박재백 박정태 박치환 박형구 박희관 변용환 서복현 서재원 손 신 송정근 송철수 신광배 신범주 양재영 왕순모 이광봉 이규하 이균우 이기환 이동대 이병구 이영준 이재순 이철호7 이한수 이호준 임영호 장영조 장훈상 정광덕 정성원 정승진 정용하 정유철 정채화 정해석 조승환 조재우 최석렬 최영규 최인근 허영재 황규태 (이상 64명)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박성중(30회)

<2020년 30회 재경동기회>

☆회 장 : 허선행 ☆총 무 : 김진홍 김홍수 박창선

△동우회 30골프회 회장 최우철 30당구회 회장 이광봉 30산악회 회장 문장호



조경태 동기생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조경태(40회)

40회 동기회장 박훈재 외 동기 일동

2020 경남중 야구부 현황



보기 순:
이름 번호,
포지션/투구·타석,
키/체중.

교장 김미정 교감 류삼형 야구부장 김경배 감독 김상욱 투수코치 이재곤 야수코치 황태호

3학년 → (총11명)

박민규 12 포수/우우 180/86	강병욱 7 내야수/우우 169/65	윤하량 20 포수/우우 165/71	안경준 22 내야수/우우 171/66	최태원 15 내야수/우우 180/85	신민우 1 투수/우우 177/73	윤준빈 11 투수/우우 181/92	송준영 29 외야수/좌좌 173/72	이주영 10 외야수/우우 181/80

2학년 → (총15명)

안태욱 5 내야수/우우 153/43	이준성 21 투수/우우 177/85	김한진 25 포수/우우 180/85	배경근 14 내야수/우우 175/67	진석현 18 투수/좌좌 180/88	김지민 19 투수/좌좌 170/65	박현준 16 내야수/우좌 168/66	김근희 32 투수/우우 185/83	김동욱 6 내야수/우우 178/79

1학년 → (총7명)

김완 13 내야수/좌좌 170/77	문성민 24 외야수/좌좌 171/73	박중현 23 투수/우우 173/74	서연우 37 투수/우우 180/79	성지백 9 외야수/좌좌 173/77	우정민 2 내야수/우양 162/60	이지훈 17 투수/우우 171/85	정은성 31 외야수/우우 178/71	최민제 8 내야수/우좌 168/71

장진혁 4 내야수/우우 164/63	권영인 26 투수/우우 175/70	강민기 3 포수/우우 165/66	이서준 28 내야수/우우 169/63	이지민 27 내야수/우좌 174/65	이준우 33 외야수/우우 181/84



모교 초창기 변천사

연도	일자	이벤트	학교 위치	학교명
1942년	4월30일	학교 개교(한국인 40명, 일본인 80명)	부산고등소학교(구 부산여고 자리)	부산공립제2중학교 (5년제)
	5월	신축교사 공사 시작	문현동 일본군 제5연대 자리(면적: 1만 5248평)	
1945년	8월15일	해방, 일본인 퇴출	부산고등소학교(구 부산여고 자리)	부산공립제2중학교 (5년제)
	9월28일	교사 발령(조명래 외 20명)		
	10월9일	학교 교사 1차 이전		
	10월29일	안양백 초대교장 취임		
1946년	10월31일	학교 교사 2차 이전	남일국민학교 교사	경남공립중학교 (5년제)
	3월6일	학교이름 개명		
1947년	6월22일	제1회 졸업생(72명)	부산고등여학교 (토성동 3가12번지)	경남공립중학교 (6년제)
1948년	미국식 학제에 따라 9월 입학, 6월 졸업			
1949년	학제 개편(5년제에서 6년제, 교감 발령)			
1949년	제2회 졸업생(38명)			
1950년	5월3일	제3회 졸업생(239명)	부산동신초등학교, 교장관사 등 분교장 전전 수업	경남중학교 (6년제)
	6월1일	제4회 졸업생(279명)		
	6월25일	학교이름 개명		
	7월10일	625사년 발발		
1951년	9월23일	군에서 교사 징발	부산동신초등학교, 교장관사 등 분교장 전전 수업	경남중학교 (6년제)
	10월31일	안양백교장 전남 문교사회국장으로서 전보		
	2월12일	2대 이영순교장 취임		
1951년	8월31일	노천수업	구덕산	부산서중학교 (24학급) / 부산제1고등학교 (15학급)
	8월31일	제5회 졸업생(270명)		
		교육법 개정, 중고등학교 분리		

경남중학교(1951년 8월31일에 6년제 분리 출발)

연도	일자	이벤트	구덕산	경남중학교
1952년	2월27일	분리 후 초대 이갑도교장 취임(통산 3대)	구덕산	부산서중학교
	3월24일	제1회 졸업생(377명)-통산9회		
1953년	3월21일	제2회 졸업생(396명)-통산10회	구덕산	경남중학교
	4월16일	3학년 증설(27학급 완성)		
	7월10일	학교이름 개명		
1954년	5월26일	제11회 졸업생(489명)	토성동 교사	경남중학교
	8월25일	제2육군병원으로부터 본교사 인수		
1955년	4월3일	본교사로 이전		
1956년	9월22일	1학년1학급 증설(28학급)		
1959년	9월22일	4대 김용재교장 취임		
1959년	1월6일	신축교사 기공식		

경남고등학교(1951년 8월31일에 6년제 분리 출발)

연도	일자	이벤트	구덕산	경남고등학교
1951년	11월16일	가교사 17교실	구덕산	부산제1고등학교
	2월27일	3대 추월영 교장 취임		
1952년	3월26일	제6회 졸업생(209명)	구덕산	경남고등학교
	4월23일	가교사 증축(10교실)		
1953년	7월10일	제7회 졸업생(396명)		
1954년	7월10일	학교이름 개명		
1955년	5월5일	제8회 졸업생(289명)		
1955년	5월24일	덕형관 기공		
1956년	5월24일	덕형관 준공		
1961년	4월1일	4대 강정룡 교장 취임		

덕형관 원형 복원사업 막 올라

설계용역 업체 선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착수 총동창회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합리성 제고해야

경남고 덕형관 원형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설계용역업체로 서울 소재 다올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다. 지난 2012년 덕형관 문화재 등록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8년 만에 원형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이로써 지금까지 활동했던 덕형관 원형고증 및 복원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임무를 종료하게 됐다.

덕형관 원형 복원사업은 곧바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설계, 정밀안전진단 착수에 들어가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1년 1월 원형복원 및 내진구조보강 공사비 교부신청을 거쳐 11월 원형복원 및 내진구조보강 공사를 착공해 2022년 3월 완공하는 일정을 잡아두었다.

문제는 덕형관 원형 복원사업이 과연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까지도 덕형관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와 사실 왜곡이 나돌았다. 특히 종합정

비계획 수립과 설계, 정밀안전진단을 맡은 서울 업체에 이 같은 편향된 인식이 그대로 유입,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덕형관은 기록 보존이 부실해 복원작업을 문헌자료 분석에 의존할 경우 자칫 졸속 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덕형관 건설 시기나 직후에 수확한 원로동문들에 대한 고증을 비롯, 부산 현장에서 분석과 자료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더불어 원형 복원 이후 역사관 등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과 이를 설계과정에서 반영하는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 같은 우려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 총동창회 차원에서 덕형관 원형 복원사업을 선도할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총동창회도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금명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고 정독실, 공부 잘 되겠네” 경남고 정독실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코로나19사태가 해소되는 대로 개방할 계획이다. 정독실 책걸상 구입은 천신일(15회) 동문의 후배사랑 기부로 해결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등교수업 대비책 마련 온라인수업 완벽 준비

경남고는 온라인 수업 과정에도 등교수업 대비책을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였다.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교실 및 특별실 내 거리두기 좌석 배치 △열화상 카메라 3대 설치 발열 검사 △학생 및 교직원 식당 1인 칸막이 설치, 전 좌석 실명제 △복도 및 계단 중앙선 설치 등이 실행됐다.

한편 경남고는 코로나19사태 초기에 장기화를 예상하고 모든 교사에게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교재 연구를 하며 수업을 준비해 왔다. 교사들의 수업 플랫폼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또 온라인 개학 2주 전부터 학생들을 초대, 파일럿 수업과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실제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자 모든 교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개학에서 교사들의 열정이 오롯이 발현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교장선생님 떡볶이’ 먹고 기운 ‘펄펄’

경중 김미정 교장, 야구부에 직접 요리 간식 제공

경남중 김미정 교장은 지난 4월 야구부 훈련 때 간식을 손수 준비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었다(사진). 김 교장은 가게 등에서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빵, 피자, 치킨보다는 정성이 들어간 간식을 생각했다. 국제시장에서 직접 떡볶이 재료를 구입한 김 교장은 가정용 고추장, 야채, 어묵, 떡 등을 버무려 떡볶이를 요리하고, 만두를 구워서 학생들과 함께 먹었다.

이날 학생들은 ‘예쁜 교장선생님’이 만들어 준 맛있는 간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 교장은 학생들의 어려움과 애로들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학생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을 주었다. 김 교장은 야구부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등 모성적(母性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만들기 총력

경남중, 실내야구연습장·야구부 숙소 개선도 추진

경남중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다. 경남중은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바꾸기로 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신청을 해둔 상태이다. 경남중은 시교육청의 2021년 1순위 설치 배정을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

경남중은 중장기 계획으로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과 야구부 숙소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다. 우선은 시교육청의 2,000만원 지원 예산 공모

에 응하고, 동창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중은 최근 학교건물 외벽 창문 보호 안전망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야구부 훈련 중 야구공에 의한 인적 부상과 창문 파손 등 교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야구부는 보다 편안히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안전망 설치공사는 총동창회에서 문제점을 학교와 공유하고 지원키로 했으나 학교측이 자체 예산으로 해결했다.

경남중, 교실 환경 일제히 정비

총동창회, 방송동영상 송출 시설 지원

코로나19사태로 온라인 수업 중이던 경남중 교직원들은 학생과의 만남을 꿈꾸며 오프라인 개학준비에 정성을 다했다. 이번 코로나기간 중 학교 전체 방역과 학생 밀집 취약지역인 급식실 운영방안 개선, 급식판 교체, 특별실 청소, 교실 학급비품 소독, 각종 시설 교체 등 교실환경을 일제히 정비했다.

경남중은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 감염예방 물품 구입 및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각 교실 암막 방염 블라인드 설치, 빔프로젝트 교체(1학년 5개반, 2·3

학년 순차적 교체), 페인트 작업, 각 교실 공기정화 화분 설치, 살균수 제조기 비치(교육청 지원) 등 다양한 개학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방송동영상 송출 시설 건은 총동창회의 지원(730만원)으로 해결했다.

한편 경남중은 지난 온라인 수업에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온라인 관련 외부 전문가 초빙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였고, 시범수업도 몇 차례 가졌다. 각종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용마코러스, 대면 연습 재개 “용기”

7월 24일 이태석기념음악회, 11월 24일 정기연주회

용마코러스(단장 최상규·31회)가 결기를 드러냈다. 코로나19사태가 다소 고개를 숙였다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정면돌파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석신부기념음악회가 오는 7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태석기념사업회에서 일정 확정을 통보해 왔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어쩌면 운명과 같은 출연이기에 불가피한 대면연습을 6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물론 바이러스 대비는 한다.

합창단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 그동안 함께 모여 하던 대면연습은 중단해왔다. 긴 방학이었던 셈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파트별 연습

영상을 제작, 공유하며 개인연습을 해왔다. 5월에는 온라인 연습도 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실력을 내보이며 수준을 검증받게 된 다급한 상황에서 대면연습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또한 오는 11월 24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갖는 제4회 정기연주회 일정이 잡혀져 있다. 남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 코로나19사태의 종식도 미지수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기본 음원과 동영상상을 제공해왔지만, 단원이 함께 호흡하며 멜로디를 익히고 화음을 맞춰 곡이 지닌 감정에 몰입하는 합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규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총동창회관



대면연습을 시작한 용마코러스 단원들

내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당에서 연습을 갖는 등 용마코러스는 일대 분위기 쇄신 기회를 맞고 있다. 이태석신부기념음악회와 제4회 정기연주회가 코로나19를 딛고 성공한 연주회가 되기 위해선 단원 전체의 비상한 결의와 결속이 관건이다.

14회 산악회 = 둘레길 산행



코로나19사태로 올해 들어 산행을 못하다가 김익명 대장이 과천 대공원 둘레길로 친구들을 불러냈다. 연둣빛 신록의 계절, 눈부신 5월이다 가기 전인 지난 달 14일(목) 10명이 모였다. 과천호수 둘레길과 장미원 등 테마공원을 들르려던 계획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막혔다. 산림욕장 둘레길을 걸었다. 대공원 정문쪽에서 2번째 단체 인증사진을 찍고, 전철을 타고 사당역 부근 예약 식당으로 향했다.

◇참석자 : 권명 김익명 김일암 김중수 김택원 손수정 이문기내외 조광명 황원재

(不老공원)까지 쉽게 오른다. 휴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일과를 피해 등산객들이 많이 붐빈다. 불로공원의 진시왕 불로초 얘기며 할매봉 전설 등을 새기고, 정상 할매봉에서 인증샷 후 곧바로 하산길. 산제당 전설을 뒤로 하고 목욕 없이 시장통 횡집에서 각 일병 걸쳤다. 얼큰한 기분에 다음 산행을 황령산으로 정하고, 모처럼 영도 도개다리를 건너본다.

◇참석자 : 김종국 박신도 박재구 박청홍 송유근 이건우 하영수



트출발점~족두리봉~불광사쪽 능선코스~정진공원~둘레길~대호아파트~불광역 코스였다.

이번 산행거리는 4.5km. 산행시간은 2시간 45분이 소요되었다. 비 그친 직후 안개구름 속에서, 산 입구부터 가파른 바윗길 혹은 암반·암벽구간을 두발 혹은 네 발로 산행했다. 북한산 3분의 2 이상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개구름 속에서 ‘열(10) 건로(健老)’가 유격체련과 저온사우나를 하며 헤르만 헛세의 ‘안개 속에서(Im Nebel)’ 다녀온 기분이었다.

◇참석자 : 고문찬 권정덕 김인선 백용환 이복춘 이상만 이종선 임유홍 정순창 조경래

17회 등대회 = 정기모임



금년 초에 한 번 모임이 있었다. 그후 코로나19사태로 모임을 피하다 5월 12일(화)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 중남해에서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김길호 박가식 박중구 박청홍 신정아 오태식 윤성욱 장승구 정동길 하영수

18회 삼목회 = 정기모임



지난 5월 21일(목) 삼목회 5월 모임을 자갈치 명물 횡집에서 가졌다.

19회 재경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5월 24일(일) 1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북한산 족두리봉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은 전철 불광역~북한산둘레길7구간 대호아파

21회 금요포럼 = 정기모임

5월 8일(금)

코로나19로 인하여 2개월 만에 동기회 사무실에서 금요포럼(매월 둘째 금요일) 정기모임을 가졌다. 강수경 외 26명이 참석하여 최상의 푸짐한 고래고기, 고급 만두를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시고 우애를 나누었다. 오후 8시30분에 모임을 마쳤다.



23회 이상골프회 = 정기모임

코로나19로 세월이 하수상 하어도 늙은이들의 열정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가보다.

지난 4월에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구장(球場)을 옮겨 부산CC에서 12명의 친구가 모여 즐거움을 나누었다.



<기사31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30면에 이어서>

이번 달은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지난 5월 13일 (수) 월례회를 가졌다. 역시 백발을 휘날리며 산야를 휘젓는 기개는 마치 구덕산 자락을 헤매던 예전 그때의 젊음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다.

1조 해탈조(스코어에 연연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선 도인들)에 김종광, 전상대, 박인권, 이충호 동기, 2조 다크호스조(얼마나 신경전을 벌였는지 사진조차 찍을 틈이 없었다며, 아직도 기량을 연마하는 무서운 분들에게 이영훈, 정용호, 최인식, 이상수 동기, 3조 챔피언조(이미 기량은 정상급이건만 에이지 슈트를 꿈꾸는 욕심 많은 친구들)에 정상진, 이병찬, 원인진, 김태용 동기가 조를 이루어 경기를 치렀다. 정작 우승은 해탈조 이충호 교수가 차지하였다(마음을 비우니 되더라?). 물론 메달리스트는 정상진(81타) 동기가, 우정상(양보상)은 모든 회원이 수상하였다.

24회 산우애 = 5월 산행대체 번개모임



지난 5월 9일(토) 오후 5시 양산박에서 1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5월 산행을 대체한 번개모임을 가졌다. 이번 번개모임은 코로나19사태 영향으로 2020년도 시산제 이후 3개월 만의 모임이라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회장 태창업, 총무 김인구)

◇참석자 : 광두희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배재일 안형수 여철우 임민호 장동출 장수현 정기춘 최승국 최원주 태창업 황성동

24회 이사빌 = 5월 월례모임



지난 5월 10일(일) 오후 2시 중앙동 플라틴당구카페와 성문식당에서 13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5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경기 결과는 우승 노상우, 준우승 김경남 동기가 차지하였다. (회장 최우림, 총무 임덕철)

◇참석자 : 광두희 김경남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박해성 이재능 임덕철 정기춘 주점권 최우림 태창업 황성훈

25회 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5월 10일(일) 17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제352차 정기산행으로 양산 오봉산을 다녀왔다.

◇참석자 : 강봉호+1 강영건 김주호 김지원 박현호 방문성 백민호 변재국 윤석건 윤지한내외 이성득 이종찬내외 장기남 홍종만

경남고에 '셀프 발열체크기' 기증

정유석(51회) 동문, 후배 사랑 선행

정유석(51회·주메디올포 대표) 동문이 지난 5월 20일 경남고에 '셀프 발열체크 가디언 키오스크'를 기증했다(사진). 이 기기는 30여명의 발열 상태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 코로나19사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대 가격은 1,500만원 상당의 고가이다. 정 동문은 "후배들이 코로나19사태로 학업에 지장 받는 상황에서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문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 정 동문은 동창회밴드에 '총동창회장님과 선배님들께 배운 대로 앞으로 더욱더 모교와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올렸다. 용마의 긍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날 기증식에는 정 동문 외 정대호 경남고 교장과 총동창회에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배준수(47회) 동문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0일(일) 12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영도 절영해안길 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은 송도해수욕장~남항대교~영도 절영산책로입구~중리항~75광장~흰여울마을~영선동코스였다.

◇참석자 : 김구화 김용수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장세훈 탁준길 황근태

29회 동기회= 졸업45주년 행사 확정



지난 5월 12일(화) 오후 서면 부광횃집에서 본부동기회 졸업45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졸업 45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조정했다. 행사일시는 오는 10월 17~18일, 장소는 강원도 속초 일원으로 정했다. 고성통일전망대, 화진포,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트레킹, 창령포 단종 사적지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참가예정인원은 75명(부부동반 제외 인원)으로 잡고 서울동기회 참가희망자는 부산인원 확정 후 모집한다.

◇참석자 : 이충원(동기회장) 이강훈 오덕현 김호성 김영훈 박성철 김영화 황유명 현응렬 박장철(이하 무순)

한편 29회 산악회 '29BC'는 지난 5월 24일 금정산 둘레길을(사진), 지난 4월 26일 봉래산 둘레길을 다녀왔다. 금정산 산행 참가자는 박광우(회장) 박성철 이충원이석조 김대욱 강성훈 김순기 서영학 배현오 정란. 봉래산 산행 참가자는 박광우(회장) 박성철 김대욱 김기영 이충원 이강훈 강성훈 서영학 배현오 현응렬.

26회 동기회 = 월례회



지난 5월 26일(화) 범일동 텐이몽에서 27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5월 월례회 모임을 하였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올해 첫 모임이라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수남 강영녕 강태중 권해국 김선일 김정곤 김지승 김택영 김형 박상호 박재욱 박재창 박철홍 신형진 왕정일 유봉식 윤희석 이경호 이광태 이영덕 이영학 정인수 최수일 최윤림 최의수 최현 황광수

27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5월 10일(일) 17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제352차 정기산행으로 양산 오봉산을 다녀왔다.

◇참석자 : 강봉호+1 강영건 김주호 김지원 박현호 방문성 백민호 변재국 윤석건 윤지한내외 이성득 이종찬내외 장기남 홍종만

30회 삼공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5월 10일(일) 6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제914차 정기산행으로 금정산을 다녀왔다.

<기사32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31면에 이어서>

◇참석자 : 김상직 김인섭 문장호 이상수 장영조 정용하

31회 투토회 = 정기모임



바둑을 좋아하는 동기들의 '투토회' 5월 정기모임(매월 둘째 토요일 개최)이 지난 5월 9일 토요일, 서면 '금메달 기원'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소수 회원만 참석했다.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과 함께 즐겁게 바둑을 둔 하루였다. 대국이 끝난 후에는 근처 '야우 보쌈'에서 식사와 함께 대국을 복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 : 권해철 배정호 안기수 정정남 최해영 한문성

36회 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5월 17일(일) 해남 달마산, 도솔암 산행이 동기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박철종 동기가 일정이 맞지 않았어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 얼굴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 (다음에는 산행도 같이 합시다.) 특히 1군을 무사히 이끈 윤경준 동기가 수고 많았다. 암 산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한 친구들도 많았다. 가족 참여도 있어 뜻깊었다.

◇참석자 : 공진식 광상호 김동현+1 김수용 김종구 김중백 김종일 김창일 김현철 맹경태 박철종 성귀호 손진규 안재익 양호진+1 윤경준 이동희 임창의 전영목 정병기+1 최상도 최태섭

36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5월 14일(목) 유명한물레복집(부산진시장 뒤)에서 56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안전으로는 2019년도 감사보고와 동기회장 이취임(최상도 → 신임 김종백) 및 소모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 광상호 김경찬 김광수 김규선 김도균 김동기 김동일 김동현 김병주 김상백 김수용 김용진 김원석 김정현 김종구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준안 김창일 김철원 김현철 김호욱 맹경태 박용칠 박재영 박진용 박형출 서세정 손진규 신창우 안재익 양호진 오

올 봄 화제의 핵 '이태오', 용마의 '핏줄'

드라마 '부부의 세계' 주연, 박종화(19회) 동문 아들
"잠깐의 인기 연연 않고 연기력 갖춰 초심 지키거라"



박종화 동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세상 모든 불륜남을 위한 '이유 있는 변명'으로서 떠오른 명대사이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원작 '닥터 포스터') 남자 주인공 이태오가 자신의 불륜을 폭로한 아내 지선우에게 향한 말이다. 가정을 파탄 내는 이 불륜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고."

드라마 속 이 불륜남은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로맨틱한 연애를 택한 비열한 인간이다. '나쁜 X'이다. 그런데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뻔뻔한 불륜남으로서 극 중에서 존재감이 작렬한다. 보통의 연기력으로는 이 같은 캐릭터를 소

화해 내기 어렵다.

2020년 봄, 화제의 주인공 이태오의 예명은 박해준이다. 본명은 박상우이다. 그는 용마의 핏줄이다. 박종화(19회) 동문의 셋째 아들이라서 1976년생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기 출신이다.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오랜 시간 연기력을 다져왔다. 2007년 연극 '그때, 별이 쏟아지다' 데뷔 이후 영화 '화차' '화이', 드라마 '미생' 등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박해준은 배우 출신 아내 오유진과 2011년 결혼,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박 동문은 아들의 이번 대성공에 대해 "잠깐의 인기 연연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 늘 초심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낮은 자세로 행동하길 바란다. 공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춰 바른 길을 가되 성실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해준 사진은 저작권 때문이기보다 본인이 극구 사양하며 보여준 겸양을 존중해 신지 않았다.)

명재 우한주 이동희 이상권 이성호 이송준 이필이 이학수 임창섭 임창의 장상욱 장창용 전영목 전현우 정병기 정윤희 정홍원 조성영 최상도 최승호 최태섭 한만준 허성진

36회 울산동기회 = 번개모임



지난 5월 25일(월) 울산 중구 다운동 '민지수산물'에서 번개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사태로 1분기 정례모임을 갖지 못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모처럼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울산 36회 7명은 싱싱한 해물요리를 맛보면서, 이원석 총무가 제안한 기금 적립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1차 모임 후 인근 노래방에서 숨은 가창력을 겨루었다. (회장 박성만, 총무 이원석)

◇참석자 : 강태원 박성만 박철종 심왕보 이원석 정윤희 제갈재환

54회 동기회 = 집행부 임시총회

지난 4월 9일(목) 사상 야끼짬(조중완 동기회장 운영)에서 9명의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가졌다. 안전으로는 동기회 부회장 추가영입 및 환영인사, 경남중고 54회 홈커밍데이 일자 최종확정(2020년 11월 7일(토) 모교 및 코모도호텔), 2020년도 동기회비 1차 목표금액 설정 및 총동창회관 건립기금 자발적 참여 적극 홍보 등을 의논하였다. 이날 회비는 참석인원이 3만원씩 각출하여 집행.



◇참석자 : 고지현 김영빈 김진욱 양현진 이동하이 재진 이재필 전명진 조중완



여근섭(41회) 동문, 회관 내 전시회

여근섭(41회) 동문 작가의 작품이 총동창회관 1층 카페에 전시되었다. 지난 6월 1일부터 동문의 50호 두 작품과 소품 3점이 카페 벽에 걸렸다. 큰 그림 두 점은 여 동문의 초창기작으로 동문 추억의 장소인 구덕산숲 풍경이다. 한편 여 동문은 6월 1~27일 양수성(46회) 동문이 운영하는 '고서점' 내 '갤러리 the old'(부산 수영구 수영로 464번길192층)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다. 스케치 작품 30여점 전시.

총동창회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공지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전화번호 : 051-253-7788
*팩스 : 051-255-7787

요즘 어떻게?

<19회>

△정철화 = 아들 영준군 5월30일(토) 16시20분 강변역 웨딩스퀘어 강변테크노마트 3층 루시드홀에서 결혼식.

<20회>

△문형남 = 4월21일 「희망이음 내일 센터 : 주식회사 잡고(JobGo)」개소. (부산 연제구 해암취폐).

<24회>

△김명배 = 빙부상. 4월10일 삼육부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6회>

△김일광 = 장녀 하연양 4월11일(토) 11시30분 서울 오륜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 △서준희 = 부친상. 5월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성재일 = 부친상. 4월11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윤수현 = 모친상. 5월21일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7회>

△강위정 = 모친상. 5월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상문 = 빙모상. △김종하 = 모친상. 4월29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아들 민수군 5월31일(일) 11시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창원 5층 가든하우스에서 결혼식. △윤일근 = 부친상. 5월8일 좋은삼선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8회>

△박흥태 = 부친상. 4월16일 경남사천 한마음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서명수 = 장녀 4월25일(토) 17시에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두베홀에서 결혼식. △조석태 = 차녀 4월18일(토) 13시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결혼식. △한명재 = 차녀 승미양 5월5일(화) 18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결혼식. △한원택 = 모친상. 4월21일 기장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9회>

△고용남 = 장남 경우군 5월16일(토) 11시 삼성힐타워 더S웨딩홀 1층 그랜드홀에서 결혼식. △엄상현 = 장남 태웅군 6월20일(토) 16시 천주교 역삼동성당에서 결혼식. △정방호 = 아들 원준군 4월18일(토) 12시 서울 DMC타워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30회>

△강형구 = 모친상. 4월21일 진주센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광호 = 빙부상. 4월14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경남 = 빙부상. 5월6일 서울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남권 = 모친상. 3월3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진홍 = 모친상. 5월2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철규 = 모친상. 5월18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

인. △배기경 = 빙모상. 5월17일 군포 지샘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신반철 = 모친상. 5월15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왕순모 = 부친상. 5월2일 남천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영일 = 빙모상. 4월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재순 = 차녀 은주양 4월11일(토) 12시 그래머시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정채화 = 부친상. 5월6일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1회>

△김학현 = 모친상. 5월2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박경수 = 차남 기현군 5월24일(일) 헤리움웨딩홀 2층에서 결혼식. △오호철 = 부친상. 4월2일 영도 구민 장례식장에서 발인. △안우현 = 빙모상. 4월23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승진 = 모친상. 5월22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용정 = 장남 민기군 5월23일(토)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33회>

△백홍문 = 「김해효심데이케어센터」 2020년 5월 1일(금) 개원. 경남 김해시 삼계중앙로 38, 삼강빌딩 4층. tel.055-329-224

<34회>

△김교민 = 빙부상. 4월30일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승용 = 아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해훈(6회) = 5월 17일 작고
- ▶고한운(10회) = 5월 24일 작고
- ▶우병운(10회) = 3월17일 작고
- ▶황봉실(10회) = 4월 10일 작고
- ▶강운구(12회) = 3월 11일 작고
- ▶허재순(12회) = 3월 19일 작고
- ▶최 철(20회) = 4월 8일 작고
- ▶이도진(25회) = 5월 9일 작고
- ▶강상호(29회) = 5월 22일 작고

들 5월23일(토) 11시30분 울산 W city 컨벤션 7층 하우스가든홀에서 결혼식.

<36회>

△박영철 = 부친상.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장덕조 = 모친상. 4월1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전인수 = 모친상. 4월15일 김해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9회>

△공영기 = 모친상. 4월20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41회>

△문상현 = 모친상. 4월3일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58회>

△허기욱 = 4월11일(토) 15시 서울 라비두스에서 결혼식.

총동창회관 건립 '용마의 긍지'로 구독료 4,000명 달성하자, 으랏차차!

“스승님, 지금도 독일 명시 원어로 노래합니다”

허발 선생님을 추모하며-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허발 은사님

허발(許鉢) 은사께서 지난 4월 26일 93세를 일기로 수원요양병원에서 운명하셨다. 우리를 직접 지도해 주셨던 스승님 중 마지막 분이 영면하셨다. 고려대학 문과대를 졸업한 뒤 1952년 모교에 부임, 10년 동안 독일어를 열심히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1961년 모교인 고려대학으로 떠나시기까지 많은 일화를 남기셨다.

독일어를 웬만큼 잘하는 동문이 유난히 많았던 것도 모두 선생님 덕이다. 선생님의 기억력은 대단했다. 졸업 후 우연히 만난 옛 제자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1952년 4월 1일 9회 입학식날을 기억한다. 1학년 4반 60명의 이름

을 처음 부르셨다. 이튿날 출석부를 보지 않고 '60번 ○○○, 59번 ○○○...'식으로 거꾸로 1번까지 정확하게 호명하여 제자들을 압도하셨다. 또한 다정다감하고 엄하셨다.

선생님은 뛰어난 독일어 실력으로 명강의를 하셨다. 음악과 야구·축구 등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하셨다. 하이네(Heine) 시를 비롯, 독일 명시 몇 개는 노래로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지금도 곧잘 원어로 노래를 부른다.

선생님은 9회부터 12회까지는 '축구부 부감'으로, 13회부터는 '야구부 부감'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셨다. 한글학자 허용 선생의 친동생인 선생님은 1993년 고려대 독문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하시고 고려대학 명예교수로 계셨다. 선생님은 용인 평온의 숲, 안성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셨다.

고마우신 스승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후임 사무국장 윤원욱(39회) 동문

업무 익혀 내년 1월 정식 취임

신승렬(3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의 후임자로 윤원욱(39회·사진) 동문이 선임됐다. 윤 동문은 현재 동창회보 영상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등 총동창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업무 파악과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동문은 사무국이 동창회관으로 입주 이사한 지난 6월 1일부터 현임 신 사무국장과의 호흡을 같이하며 업무 익히기에 돌입했다.



윤 동문은 향후 7개월간 합동 업무를 수행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차기 총동창회장인 박성철(29회) 제1수석부회장과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

2020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2,256명 (2020. 5. 26.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료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 6회 임경택 2021년
- 11회 김광석 2021년
- 12회 김종련 2021년
-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 15회 박영무 2021년, 임영길 2022년
- 18회 갈영수 허만조 2021년,

- 박석도 2022년, 홍우재 2024년
- 19회 김덕수 2021년
- 20회 오기현 유근준 2021년
- 23회 박재호 2028년, 신언국 2022년
- 25회 김진우 문재인 서병수 송동준 한현교 허만택 2021년, 임창운 2051년
- 26회 강의규 박경수 이정곤 2021년
- 27회 문성기 2021년
- 28회 박성권 임상규 2021년, 안풍 2022년, 하재근 2028년

- 30회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최진곤 2021년
- 31회 민종현 2021년
- 32회 송기수 임채균 최춘호 2021년
-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 36회 김병국 2021년
- 37회 서동욱 2021년
- 38회 권두성 2029년, 김경곤 주영록 2021년
- 42회 정용중 2021년

- 45회 최재근 2021년
- 46회 한영길 2022년
- 48회 김춘호 2023년
- 49회 장민건 2021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1회 신현식 2029년
- 53회 문희규 전세일 2021년
- 54회 엄도용 2023년
- 69회 정민기 2023년

3회(6명) 노관택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7명) 김경식 김희수 박홍기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10명) 김인택 김재관 김진후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6회(18명) 김상엽 김종철 김태환 박기복 박용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강운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7회(18명) 강병희 김갑성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호용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이대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19명) 김동훈 김봉길 김영철 김영환 박재범 박희욱 안종열 엄덕양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19명) 김경희 김기관 김영국 김 청 박남수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금열 유병철 윤일명 이영구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한동대

10회(32명) 강희운 김기호 김상규 김성규 김정학 김창덕 김평순 박재경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조중제 진 강 최병도 최형백 하영수

11회(58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관태엽 권병용 김광석 김기주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경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남호현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심재룡 안강태 양수택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이강우 이계찬 이근우 이상태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경오 조양현 지창호 천근준 천동주 최동영 최덕호 최성욱 최창욱 하중선

12회(63명) 강본순 강창수 구진웅 구창회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열 김석곤 김선일 김영수 김우성 김종련 김종일 김지희 김현주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용권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재원 이현달 이환철 이희동 장동석 장일곤 정수복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병훈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72명) 고송구 고시준 구덕건 권영계 권영채 김동호 김무조 김신부 김명길 김영호 김일수 김정균 김경일 김경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정웅 박종택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안성문 안준수 윤기갑 윤태호 이경재 이명진 이상문 이응재 이종영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중현 제병민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만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50명) 강주신 권 명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용호 김재도 김창기 김 흥 김형수 김화욱 노수덕 박충일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청홍 백대우 손영목 신기석 신현호 유경호 윤영현 윤대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재돈 이현영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순 조광명 조규향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51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승평 김쌍열 김옥규 김완식 김중태 김중환 김준곤 김홍식 김판열 남기주 남일순 문옥륜 박영길 박영무 박효가 배 훈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안경숙 오봉석 윤우경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임영길 장중호 정석우 조규중 조영일 최광웅 최병우 최 욱 최원수 하영수 하정부 한진철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16회(72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용 김박일 김상웅 김상호 김용진 김일규 김경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창희 김형석 문성환 민신웅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방수근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안인환 엄종원 여성국 영광해 오형철 옥무용 유영명 윤호주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재룡 이종철 이창원 임승언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52명) 감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조 김부근 김성락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은 남궁성은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중 신홍규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건웅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임우택 장길성 장호남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형

18회(63명) 갈영수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결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제 김길출 김사권 김 석 김성건 김재창 김경래 김종금 김종철 김홍대 류중우 문희억 박건태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문 박준성 박호영 서재봉 서준규 손찬규 안창범 우원호 윤봉수 이금희 이영호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장기영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재호 조성재 차명석 최 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허만조 홍우재 황광건

19회(72명) 강동완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운 김성진 김순호 김영우 김영태 김용엽 김인선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남진현 노덕현 노태규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석무관 선우일남 성나출 성한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원 신홍철 안성환 오대수 유문환 윤수 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달 양 환 이웅조 이용홍 이상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춘만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태을 진수상 최상대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47명)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김대업 김두영 김세준 김수신 김영철 김일석 김조동 김종민 김한원 김형오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백완근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오경석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영오 장중식 정규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병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홍순태

21회(71명) 강민우 강원태 강창수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성덕 김영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항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성렬 박인협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정근 송원경 신태윤 심광섭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태규 육화원 이문수 이상기 이상집 이재택 이재호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현국 진영천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준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한대윤 허창수

22회(69명) 강호일 고인준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근 김승규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경곤 김중달 김진철 김철현 김학근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류명운 박승목 박언표 박재상 박행천 박홍조 배병환 배춘식 변대식 변중호 부창진 서향용 손연모 손용섭 안영수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윤성복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성모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장무성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홍기 최성열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홍순욱

23회(70명) 감인홍 강창보 고용석 관상인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익곤 김경록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문창호 박영호 박재호 배중순 배준석 백창영 서승환 서한현 송영춘 신경재 신동규 신언국 안경섭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수백 이상규 이영재 이윤석 이일원 이준석 이춘호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용성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병상

24회(83명) 강동우 관두희 구본열 구자웅 권상철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명배 김우성 김민우 김성진 김승탁 김영만 김윤배 김창홍 김봉우 김정신 김창희 김한근 김현태 남창영 노상우 문섭제 문휘영 박극제 박맹렬 박운성 박천호 박홍규 배상욱 배중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덕 성춘기 손성호 손세영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찬 이 수 이재능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원서 장형동 전대현 전용우 정동화 정명근 정수철 정영석 정윤상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근 차한영 최동우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하 욱 한상렬 황성훈

25회(129명) 강수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범 김우영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중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노태호 문재인 문창진 박거환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동진 박맹우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용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박홍기 배기동 배대관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손국영 송동준 신경학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병환 윤순기 윤태덕 윤희승 이근만 이길현 이상화 이신호 이신화 이인규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근 이한식 이홍성 임상택 임영대 임창은 장대락 장세훈 전선태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병욱 조 익 조파제 좌상봉 주재걸 최광수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석성 한준석 한현교 허영형 허 택 황곤태

26회(76명) 강수남 강영병 강영원 강의규 고석훈 권해국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성권 김영섭 김일광 김재용 김경무 김정원 김종우 김재영 김태년 김태용 김홍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권병 박두식 박상호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욱호 신동춘 심덕수 심송택 왕정일 왕호석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이경호 이규용 이명진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우상 이경근 이종욱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장인철 정국근 정영륜 정태현 정현준 최낙준 최형해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규근 하주근 홍순하 홍청근 홍형택 황광수

27회(65명)

강태영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병철 김상문 김수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중도 김중욱 김중하 김진명 김학희 김호균 김황열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영빈 박종국 박찬석 박준규 박치호 반정열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서명식 신용도 신한원 양태종 유영호 윤석건 윤정환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양현 이재호 이종찬 이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천우태 최석진 최인성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0명)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성운 김선경 김용석 김용원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경유 김준연 김창준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호진 박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이만수 이인우 이용남 이원철 이종대 이철행 이홍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광병 전남실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인식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허남식 황장두

29회(92명)

강대용 강성훈 곽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기수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석운 김성률 김영훈 김영희 김용채 김용화 김인술 김종권 김종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명 김태완 김호성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혁 박동홍 박명섭 박병률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균 박인평 박창언 백성욱 사공운근 서영학 손영보 손태권 손홍근 신현수 안청홍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 욱 이남중 이문열 이병익 이병건 이상진 이석조 이서훈 이정운 이준환 이진욱 이종원 임무택 임상흔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강화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허광욱 현계성 황유명

30회(72명)

강석철 구을석 권용택 김경수 김규성 김기수 김상직 김성복 김순구 김승대 김영일 김유기 김재일 김재철 김중진 김해근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문장호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신고선 신구균 신윤선 심풍수 양문섭 옥유진 유재일 유종수 이기환 이명진 이수성 이원욱 이종우 이태봉 이한수 이호준 인준성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대열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해석 조경제 조재성 채영재 최병철 최영규 최우철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하재명 황철민

31회(67명)

공종렬 김광수 김기정 김병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덕 김중규 김태근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노성현 류명석 마병진 민종현 박경수 박석수 박인정 박종호 박준영 박해성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수교 서경호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민재 이병태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전병구 정무석 정용성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부영 최상규 최상웅 최인목 최재호 최진섭 최해영 최희식 하명수 하병관 한영오 허일현 홍 구 홍성수

32회(36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중판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운대 박중구 박진원 배종찬 송기수 신국선 양문성 엄효선 우득현 윤병조 이문영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수 정용운 정의주 최승찬 최종호 최춘호 최효영 허 정

33회(53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선 김종만 김종욱 김종인 김중현 김 철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민병현 박성진 박성병 박창완 박태종 배성수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창훈 이형근 이호인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홍원 최한호 황경원 황규태

34회(25명)

강승기 곽수균 김두섭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오송대 옥재명 이강희 이상운 이서엽 이용희 이재완 이정철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홍승철 황병주

35회(34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마계성 박동렬 박창제 백현호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재수 안종업 안종일 안창돈 오문세 오시영 윤중호 이기석 이남기 이복근 이성환 이원우 이종찬 이창형 이효성 임성배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황용순

36회(48명)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병국 김병주 김용진 김중백 김중오 김중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신승렬 신용덕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관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정창규 제갈재환 지동섭 최상도 최승호 최대섭 한형식

37회(32명)

강태우 김기덕 김기동 김상현 김성현 김영근 김원범 김의렬 김중휘 김진영 김형권 김형기 문진형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현 장원익 전인수 정익수 정재호 조성각 차기완 천용찬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35명)

강금성 곽동열 권두성 김경근 김경태 김대훈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백승온 신동훈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한민덕

39회(38명)

김대중 김윤홍 김정남 김중엽 김천술 김태우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심왕섭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성태 이승기 이원영 이태윤 정순환 정연설 정우영 정진해 지홍준 천용준 하성포 하순호 허중기 황영진

40회(31명)

강창지 고승성 권귀동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김창민 김춘강 박근성 박무성 박준재 배병훈 서정민 손근호 심 철 엄점철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병완 이영철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최용석 최치언 한수열 황성수

41회(38명)

강병오 강석희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정태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정호 박철홍 백선민 백창봉 성중훈 안광근 여근섭 원태용 윤성보 윤종진 이경호 이광희 이명재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중운 홍석우 황정후

42회(16명)

강인호 김광철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서분규 신동복 신봉준 윤영덕 이정택 정용중 정훈준 제정환

43회(23명)

강병규 강택용 김대영 김동현 김성수 김영휘 김종식 김희경 박경근 박영학 박현규 백정운 윤상원 이상현 이성춘 이정열 이진배 이호영 정영민 정호범 최용석 최하림 허재원

44회(20명)

김찬홍 김 황 문형준 배봉건 안병규 안성만 우도균 이동렬 이부교 이승철 임정훈 전광렬 조영호 조철현 최현덕 탁정환 한수성 홍광호 황인주 황재훈

45회(41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종현 김찬호 김창균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종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우 신상호 양형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정일 정상희 정중훈 조청래 조태성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1명)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신경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한 윤성근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26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응태 김재성 박성제 서정민 성상용 손호준 송창은 옥재봉 윤필호 이기문 이승택 이 일 장순재 정민호 경 신 정윤호 정준홍 정하윤 조덕만 차기혁 최경훈 최원창

48회(8명)

권태현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이재희 차원일

49회(8명)

고용배 김종배 김진용 이충현 장민건 강형철 최유탄 최진영

50회(20명)

강 철 구민수 구원모 김동현 김상준 김석훈 김재호 김정현 남경협 박복열 박종현 서석진 안기범 유우진 이상구 이상준 차승준 채현철 최정민 하진일

51회(11명)

감중현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반길호 신현식 오성진 정유석 최우영

52회(35명)

강민호 강재식 공영수 구순모 김도훈 김민수 김민철 김상근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류상원 박상현 박성종 박정규 변정환 성운용 심중배 양현승 이경원 이도경 이해근 이호영 정길수 정상중 정안근 정현철 조용수 최중연 한중현 허균형 허근영 허홍만

53회(21명)

강덕천 곽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민걸 김상욱 문희규 박성영 박우진 박정진 백홍상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최동환 한동인 황선경 황종민

54회(14명)

고강인 고지현 권태호 김영빈 남준현 민병철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정준섭 제재철

55회(4명)

김태연 이항림 최성원 최범준

56회(1명)

임재철

58회(1명)

김현운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2명)

김덕형 김시준

67회(1명)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7회(1명)

김건우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명예회원 박희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5명

2020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0년 5월 26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2	0	0%	20	171	47	27%	39	118	38	32%
2	1	0	0%	21	184	71	39%	40	117	31	26%
3	11	6	55%	22	186	69	37%	41	91	38	42%
4	19	7	37%	23	219	70	32%	42	53	16	30%
5	27	10	37%	24	236	83	35%	43	86	23	27%
6	38	18	47%	25	359	129	36%	44	73	20	27%
7	50	18	36%	26	230	76	33%	45	38	41	108%
8	59	19	32%	27	214	65	30%	46	54	31	57%
9	58	19	33%	28	199	70	35%	47	60	26	43%
10	88	32	36%	29	233	92	39%	48	13	8	62%
11	124	58	47%	30	242	72	30%	49	65	8	12%
12	163	63	39%	31	132	67	51%	50	68	20	29%
13	165	72	44%	32	120	36	30%	51	121	11	9%
14	136	50	37%	33	138	53	38%	52	156	35	22%
15	142	51	36%	34	69	25	36%	53	43	21	49%
16	204	72	35%	35	128	34	27%	54	58	14	24%
17	134	52	39%	36	136	48	35%	55	11	4	36%
18	205	63	31%	37	83	32	39%	56	10	1	10%
19	184	72	39%	38	96	35	36%	57이후	32	8	25%
Sub-total(1)		682명		Sub-total(2)		1,174명		Sub-total(3)		394명	
총 발송부수		6,452명		미상		5명		구독료납부인원		2,256명	
기타		1명		목표인원		4,000명					



세 상 모 든 연 결 의 중 심

사 람 과 사 람
미 래 와 현 재
연 결 의 중 심 에
S N E T 이
있 습 니 다

에스넷그룹 회장 박 효 대 (26회)

| S Net 그룹 사업영역 |

- 토털 ICT 솔루션 :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ICT 환경 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종합 솔루션을 제공
- 스마트 X : IoT/5G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도시,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 클라우드 (Cloud) : 비즈니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
- 데이터 Service : On-premise와 클라우드 환경을 아우르는 데이터, DBMS 관리 Total 서비스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 업무 효율성 및 운영 편의성 향상을 위한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

